1998. 9. 15 창간

Vol. 207

춘천성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운동 매거진

특집 전략적인 도시전도
성시 성시화운동의 다양한 전도법
기획 T4T
선교 세네갈 의료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다음세대 모세스쿨

2016
02

2016학년
신입생 모집안내



본교는 복음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오순절 성령 운동의 기초가 되는 영성훈련과 학문적 이론을 통해 전인적인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명자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모집기간 : 2016년 2월 25일(목)까지

문의처 : 033-257-2740 / 010-4015-4812
FAX. 033-241-2741



이사장 오황동 목사



학장 이수형 목사

모집학과 및 응시자격

모집학과	과 정	응 시 자 격
신 학 과 (야간)	4년제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2. 신앙생활 및 가정생활에 무흠한 자 3. 침례(세례)를 받은 자 4. 타 신학교 2년 이상 수료자 및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단. 편입생에 한함)
목회학과 (야간)	3년제	
편 입	2년제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강원신학교

커버 스토리

예수안에서 본 예술



조선후기 지방지도 춘천부지도

한복희 | 70x50cm | 장지 · 수간분채 · 먹 | 2015

젊은이 못지않게 위트가 뛰어나신 우리 한복희 사모님은 영혼구원의 도구인 미술에 대한 은사를 넘치도록 많이 받으신 분으로 옛적부터 순박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정겨운 시골을 표현한 듯한 이 작품은 앞으로 춘천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일 성역으로 우리 모두가 피와 땀으로 맺힌 기도를 절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 것 같다.

작가 한복희

충남대학교 문헌정보과 교수 역임 및 명예교수

강원기독교미술인협회 회원, 춘천미술인협회 회원

한복희 민화아카데미 운영, 평생교육원 ICU 춘천학습관 대표

미주교회(서울 청량리 소재) 직분: 사모

hbh946@hanmail.net

취재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춘천 성시 창간 1998. 9. 15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 매거진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차덕수,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편집위원
김영명, 김춘배, 이관형,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디자인
로딘어스 010.5115.8731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 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T 033.256.1260~1 F 033.257.1260 E holycc1972@hanmail.net

※ 정기구독 신청 및 광고문의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로 연락주세요.

… 성시매거진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종이를 사용합니다.

Editor's Note

1980년대에 정점을 찍고 90년대부터는 침체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는 여러 부분에서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개 교회에 실제적으로 전도되어 나오는 숫자가 줄고 있고 개척교회 중에는 문을 닫는 교회도 속출하고 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급감하고 있고 농촌지역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도 60%정도가 된다고 한다. 2004년부터는 기독교가 타종교인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 성장속도가 뒤처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요즘 이슬람의 증가추세는 가히 '이슬람공포'라 불릴 지경이다. 작년 종교 신뢰도 조사에서도 천주교는 30%대 불교도 20%대인 반면 기독교는 10%대에 머물렀다. 남의 집 불구경하듯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기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뭔가 교회가 정신을 차려할 때이고 다시 한번 영적부흥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야 할 때인 것이다.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전도를 왜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올바른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교회성장주의자들은 교회에 모이는 교인 숫자에 초점을 맞추어 전도하며 교인의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 내면에는 공명심과 업적주의가 숨어 있다. 내가 개척한 교회요, 내가 부흥시킨 교회이기에 내가 주인 노릇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모습은 결과적으로 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어둡게 하여 점점 비신자가 전도되는 것을 가로막게 된다.

전도는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다. 전도는 곧 예수님을 주는 것, 사랑을 주는 것, 구원(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축복을 주는 것, 행복을 주는 것이다. 전도의 목적은 한 사람을 인도하여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구의 폭팔적인 증가와 이슬람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속도에 비해 기독교는 여전히 '더하기식 전도'를 지향하고 있게 되면 언젠가는 기독교가 소수종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전도방법은 디모데후서2:2에서와 같이 승법번식전도이다. 마태복음28:19-20의 주님의 지상명령에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을 훈련시켜 그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하고 그들도 이와 같이 반복하게 될 때 주님의 지상명령성취는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식어진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자. 춘천이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는 것은 교회가 추수할 일꾼인 전도제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훈련할 때 가능할 것이다.

편집장 최영조

Contents

2016. 2. Vol. 207







1 커버스토리

3 에디터 노트

5 쉼 한 편
그 꽃

6 2월 캘린더

8 특집1
전략적인 도시전도

12 특집2
필요중심적인 전도 소그룹

14 성시화
성시화운동의 다양한 전도법

18 선교1
선교지에서의 전도

22 선교2
세네갈 의료 단기 선교

26 기고문
코리아 개더링 다녀와서

29 예향/만평

30 통일
49차 쥬빌리 춘천모임

32 다음세대
모세스쿨

35 칼럼
새해, 어떤 말을 하고 살까?

36 사설
시대가 원하는 사람

38 기획
T4T

42 인물
강원성시화운동본부 양명환 대표회장

46 기관탐방
춘천 남부복지관

50 예수의 미소

52 영화이야기
프리덤

54 음악이야기
리베르땅고

55 건강이야기
자녀양육

56 알려드려요

58 1월을 돌아보며

60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소식

61 후원자 명단



그 꽃

고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2
2016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 성시화 기도제목

·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 성장하되 공생의 경제윤리가 세워지게 하소서.

· 인류의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도시거룩운동이 한국에서는 김준곤 목사를 통해 전 교회가 전 도시에 전 복음을 전하는 3전 운동으로 구체화되어, 1972년 제네바와 같은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시작된 성시화운동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후대에 전수되게 하소서.(마9:3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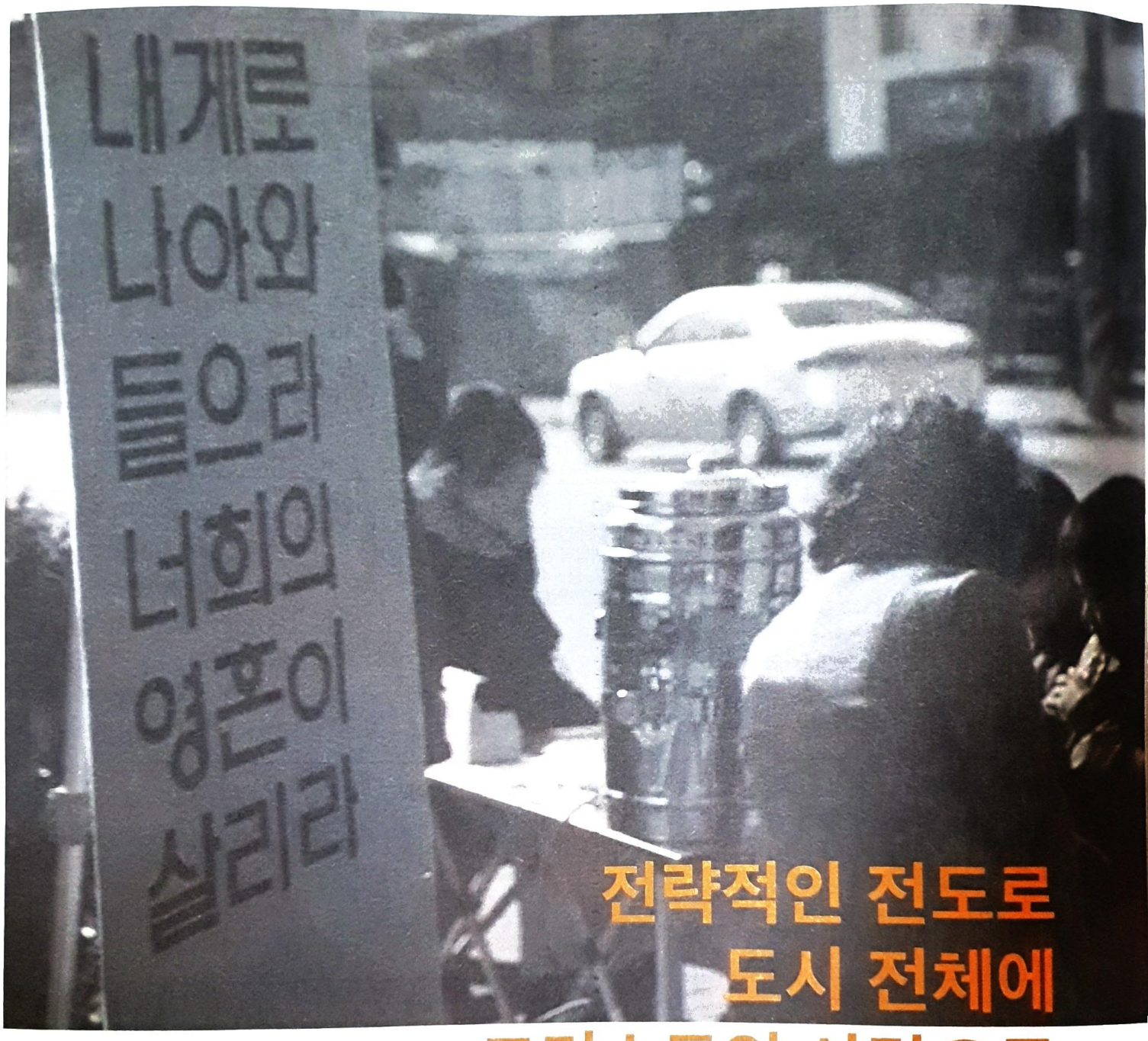
·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낙심치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승리하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시화운동이 되게 하소서.(마6:33, 히11:1)

SUNDAY	MONDAY	TUESDAY
	1 · CCC ~4 CCC 기도학교 부암동 CCC센터	**2**
7	**8** · 설날 (1.1)	**9**
14	**15** · 쥬빌리 50차 구국기도회 저녁 7시 15분, 주향교회 · IVF 지방사역협의회 ~8 춘천 IVF 회관 · CCC ~18 순장 수련회 춘천 CCC회관	**16** · 통일 기도모임 오후 4시, 주향교회
21	**22** · IVF 캠퍼스별 리더캠프 ~26 춘천 IVF 회관 · CCC ~24 캠퍼스별 졸업식 · JDM ~25 훈련센터 · 성시본부 임원 ~25일 필리핀선교여행	**23** · 통일 기도모임 오후 4시, 주향교회
28 · **3.1절 연합예배** **오후 2시, 순복음춘천교회** (1부 : 이슬람 강좌) · JDM ~3/5 캠퍼스 33 특별 기도주간	**29** · 통일 광장 기도회 저녁 8시, 석사교하천 무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출14:13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3 · 강원군선교연합회 모임 오전 10시, 신성교회 · 춘천성시매거진 편집회의 오후 2시	**4**	**5**	**6**
10	**11**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 오전 7시 · ESF 춘천 학사모임 ~12	**12**	**13** · 탈북자 도시 체험행사 · 겨울특강 : 이슬람 오전 10시, 베드로선교센터
17	**18** · ESF 이취임예배 ESF 회관 · 예수전도단 2016 YWAM Worship ~20 춘천창대교회 · 어린이 전도협회 다음세대 복음화를 위한 강원지역 목회자세미나 오전 10시. 속초 중앙교회	**19** · 예수전도단 귀납적 성경연구 목, 금 ~ 4월 16일 소양제일교회	**20**
24	**25**	**26**	**27** · 겨울특강 : 창조론 오전 10시, 베드로선교센터

♥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전략적인 전도로 도시 전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리라

글 / 예수전도단 윤진원 간사

전략적 전도 "전도, 구제, 훈련" 1960년도에 만들어진 국제선교단체 예수전도단(ywam)은 "하나님을 알고 알리자!" 라는 모토 아래에서 오랫동안 여러 나라에서 선교활동을 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수전도단에서 사용하는 선교 또는 전도의 방법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전략적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전도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전도, 구제, 훈련"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제를 통한(필요를 채우는)전도, 그리고 훈련입니다.

전도 대상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바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전도 대상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 대상이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사는 환경을 이해하고 필요를 파악하는 일을 합니다.

필요를 파악한 것을 토대로 그 필요를 조건 없이 채우는 일 두 번째는 "필요를 파악한 것을 토대로 그 필요를 조건 없이 채우는 일"을 합니다. 기본 원칙은 바로 "사랑"과 "긍휼"입니다. 말로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필요를 채우는 과정에서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일 세 번째는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며(구제) 거기서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접촉한 사람들을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전도단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지난 50여년간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바꾸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전도방법은 50여년간 전 세계 안에서, 다양한 문화권 안에서 실행되고 검증되어진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춘천 안에서도 예수전도단은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조사를 통해서 춘천 각 지역 또는 영역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에 맞는 영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진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저희가 춘천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개인 보다는 이 도시 전체의 영적인, 실제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우며 결과적으로 춘천시민들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직접 전도 보다는 간접전도의 형태이며, 역시 전략적 전도의 한 방법입니다. 먼저는 기도와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서 춘천 각 지역 또는 영역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에 맞는 영적인 또는 실제적인 일들을 진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수전도 한 예로.. 초창기 춘천 마임축제가 한창일 때 축제 방향성 자체가 일탈을 추구하고 축제 클라이막스로 무당굿판을 여는 등의 내용 자체는 썩 건전하지 않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간사들 전체가 도시와 축제를 위

해서 기도하면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색다른 방법의 전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생수전도"였습니다.

도시의 축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일탈과 즐거움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생수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수 수백통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수통에 예수님이 참생수가 되신다는 문구의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그렇게 제작된 생수를 들고 간사 전체가 나가 춘천역과 축제행사장에서 나눠주면서 생명수 되신 주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이라서 그런지 거부감 없이 생수를 받아갔는데 그들이 받아간 것은 물만이 아니라 참 생명수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이 나타나도록 그 현장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전도하였을 때 영적인 파급효과는 매우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미친 금요일에서 클라이막스였던 무당의 굿판이 사라지고, 일탈을 조장하는 불건전한 문화도 축소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마임축제의 클라이막스가 벌어졌던 장소는 KT상상마당으로 바뀌면서 건전한 문화가 자리 잡는 장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기도하고 그 필요를 채우는 전략적 전도를 통해서 도시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서는 큰 즐거움이며 보람이기도 합니다.



성탄절 쿠키전도 또 다른 예는 "성탄절 쿠키전도"입니다. 어느덧 성탄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의 구속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쾌락, 유흥 등의 날로 퇴색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성탄절의 의미가 춘천 안에서 새롭게 나눠지면 좋겠다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선물로 오신 성탄의 의미를 되살려 춘천시민에게 선물을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선물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에 적은 재정으로 사랑과 정성을 담은 귀한 선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에 생각해낸 것이 쿠키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쿠키는 인터넷으로 대량으로 구입하고, 포장지와 스티커는 따로 주문해서 포장하고 문구를 넣고 하는 일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면서 제작단가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에 쿠키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일일이 저희가 제작한 사랑의 문구가 담겨진 스티커를 붙여서 성탄 주간 3일 정도를 춘천 곳곳을 다니며 쿠키를 나눠주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년 정도 쿠키전도

를 성탄시즌에 맞춰서 했는데 전하는 우리나 받는 춘천시민들도 함께 따뜻한 성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성탄시즌에 춘천의 많은 교회들과 연합해서 붕어빵을 만들어서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Come&Eat", "후석로256 프로젝트", "붕어빵 전도"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전략적 전도는 세 가지 정도 입니다.

하나는 "Come&Eat" 이라는 것인데, 춘천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다가 춘천 안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한 달에 한번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아침식사 나누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문한 따뜻한 떡과 티백과 컵, 저희가 제작한 스티커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오전 출근시간에 간사들 전체가 나가서 음식을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런지 어색해하다가 점점 마음을 열고 흐뭇해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냄으로 그들의 마음을 복음을 향해 열려지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후석로256 프로젝트"인데 예수전도단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고품질의 "과일청"을 제작해서 값없이 이웃에게 나누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청을 두고두고 마시면서 주님의 짙은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준비단계에 있으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청이 아니고 붕어빵을 만들어서 사무실이 위치한 블럭의 모든 상가에 가서 나누는 붕어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붕어빵 전도"입니다. 붕어빵을 제작해서 함께 교제하며 붕어빵을 나누는 전도 방법인데 관계전도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전략적 전도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붕어빵, 그리고 매실차를 나누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춘천 안에서는 지난 몇 년 간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는 전도 방법입니다.

도시 안에 값없이 주님의 사랑을 뿌리는 것 저희 예수전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도방법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정리하면 필요를 파악하고, 필요를 채우고, 연결하고,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핵심은 도시 안에 값없이 주님의 사랑을 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결실이 없어도 도시 전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찰 수 있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흩어 뿌리는 것.. 결과적으로는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가득차서 지역 교회 안에도 부흥이 같이 오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만개 전도 소그룹이 움직인다면

필요중심적인 전도 소그룹 "행복모임"



하나님의 은혜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전도분과 위원장으로 섬기면서 춘천 시민의 90% 이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달라고 강청기도(눅18:1-8)를 드리고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리라 믿고 구하고 있다.(막 11:24) 뿐만 아니라, 지나온 춘천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진정한 성시화는 단발적인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한 강력한 전도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이런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해답은 필요중심적인 전도 소그룹에 있다. 만약 필요중심적인 전도 소그룹인 행복모임을 100개를 여는 교회가 100교회면 1만개의 전도 소그룹이 열리게 된다. 만약 한 도시에서 1만개의 전도 소그룹이 움직인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필요중심적인 전도 소그룹인 '행복모임' 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행복모임은 부산 풍성한교회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의 전도전략이다.

첫 번째로 행복모임은 소그룹 전도운동이다.

초대교회는 로마를 어떻게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으며, 중국은 어떻게 1억이 넘는 성도로 부흥했을까? 공산화되던 당시 약 4-50만 명에 불과하던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 어떻게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할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전도 소그룹을 통해 복음이 부풀어져 갔던 것이다. 필요중심적 전도 소그룹인 '행복모임'은 3~5명 정도가 소그룹을 이루어 각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7명을 정하고, 그 중에서 3명을 전도 가능대상자인 베스트로 삼아서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10주 동안에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베스트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이 소그룹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이런 필요중심적인 전도 소그룹 전략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도 방법이기도 하다. 행복모임은 실제적인 전도 실습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팀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여러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 나아가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섬기면서 팀원들의 기도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 협력하

여 전도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행복모임은 소그룹 기도 전도운동이다.

세계 1차 대전 때의 일이다. 당시 영국공군전투기들이 독일공군전투기에 의해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는데 그 이유는 독일전투기들이 항상 두 대씩 짝을 지어 공격을 했기 때문이다. 이 전략은 신32:30 어찌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을까 라는 말씀을 읽고 독일의 한 장교가 적용한 것이다. 전투기 한 대가 총을 쏘면 24미터 둘레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총탄에 맞아 추락되었다. 그런데 두 대가 편대를 지어 기관총을 쏘면 24미터의 두 배인 48미터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만 추락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240미터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모두 추락되더라는 것이다. 2차 대전에서는 미 공군이 이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당시 일본전투기가 성능이나 양적인 면에서 훨씬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 때마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우리가 이 전략을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합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놀라우리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매일 그룹의 멤버와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소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소그룹보다 4배나 빠르게 성장한다.

세 번째로 행복모임은 소그룹 관계(오이코스) 전도운동이다.

오이코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촉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말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주변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도대상자는 우리의 오이코스들이다. 이처럼 오이코스 전도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기는 관계중심 생활전도를 말한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방법은 관계에 의한 전도이다.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관계의 성공이 곧 일의 성공이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대화의 기술을 훈련하기도 한다. 대화의 기술이 곧 대인관계의 기술이다. 유 메시지는 지양하고, 아이 메시지를 개발해서 성공적인 관계 형성을 이루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아이 메시지이다.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필요중심적인 전도 소그룹이 1만개가 이 도시에서 생긴다면 90%의 복음화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본인은 이런 꿈을 꾸면서 이 도시가 성시화가 되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교회가 결코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춘천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반드시 성시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필요중심적인 전도소그룹인 행복모임을 더 많은 교회들이 알고, 동참한다면 춘천 성시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글 / 홍요셉목사(사랑의침례교회, 성시본부 전도분과위원장)

성시화운동의 다양한 전도법



성시화운동은 전(全)교회가 전(全)복음을 전(全)시민에게 전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운동이다. 전 복음(The Whole Gospel)이라는 말은 총체적 복음운동으로 복음전도와 교회의 사회책임을 포함하는 단어로 하나님나라 운동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시민들의 삶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1974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150개국 3,700여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스위스 로잔에 모여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영국의 신학교자요 설교가 존 스토트 박사가 초안한 로잔언약을 발표했다. 그 중 제5조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전도와 사회참여가 사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데 대하여 참회한다. 사람과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면, 사회행동이 곧 전도는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정치, 사회적 책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가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의 교리, 우리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필수적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성시화운동의 '전 복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복음주의 교회들은 복음전도에 치중했고, 에큐메니컬 교회들은 복음전도보다는 '사회책임'에 치중해왔다. 성시화운동은 복음전도와 사회책임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복음전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의 영접하지 않고는 그의 삶은 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도 마찬가지다. 예수를 믿으면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다.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로 인해 가정도, 직장도, 그가 살고 있는 도시도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시화운동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는 운동(마28:18~20)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성시화운동이 복음전도를 소홀히 한다면 성시화운동은 또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의 제1호 결신자는 춘천 시장이었다. 그리고 8,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낮에는 전도훈련을 받고 오후에는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실천했다. 저녁집회는 새 생명 축제의 현장이 되었다. 이처럼 성시화운동은 교인마다 전도하고, 시민마다 복음을 들려주고, 교회마다 배가 부흥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꿈꾸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일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전도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시화운동은 어떤 전도전략을 갖고 있는가. 4영리 전도법, 솔라리움 경청전도법, 비행기축제 등을 중심으로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4영리 전도법

전 세계 190여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가장 효과적인 전도 소책자가 〈4영리〉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4가지의 영적 원리를 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영적 성장을 위한 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교회 출석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4영리 전도의 장점은 성령을 의지하여 그대로 소리 내어 읽어주면 된다는 것이다.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 4영리를 암송하면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4영리 전도의 장점 중 하나는 이 훈련을 받는 교인들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준다는 것이다.

솔라리움 경청전도법

솔라리움 전도법은 상대방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준 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경청전도법이다. '내면을 비추는 방'이라는 의미의 솔라리움 경청전도법은 그림카드 50장을 바닥에 펼쳐놓고 4가지의 질문 -①당신의 현재의 삶을 잘 나타내는 그림 3장을 고르시오. ②당신이 소망하는 것 나타내는 그림을 3장 고르시오. ③신에 대해 떠오르는 그림 2~3장을 고르시오. ④하나님 또는 교회 하면 떠오르는 그림 2~3장을 고르시오.-라고 한 후 그 사진을 선택한 이유를 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4영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거나,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유를 갖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들어주어야 한다. 속히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특히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된다. 개인적으로 나눈 깊은 대화는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솔라리움 그림카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나 선교사들도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다.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례도 있다. 그림카드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관계전도의 유용한 도구가 된다.

성시화 비행기축제

그동안 '성시화운동 전도대회'라는 이름으로 경남, 밀양, 함안, 당진, 보령, 서산, 횡성, 대구 등 전국 도시에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전도집회를 열어왔다. 낮에는 전도훈련과 전도실천, 전도사역 보고, 중보기도특강, 성시화 특강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전도집회를 했다. '성시화 비행기축제'는 성시화운동의 비전을 행하고, 기도한다는 의미로 첫 글자를 딴 것이다. 낮에는 전도훈련을 하고, 저녁에는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새생명 축제가 되도록 기획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인들이 먼저 전도대상자를 미리 작정해야 한다. 이를 태신자 작정이라고 한다. 이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행기축제 때 찾아가서 축제에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다.

생활전도=관계전도

생활전도는 말 그대로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 가정과 이웃,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모범이 중요하다. 관계전도라고 할 수 있다. 에베소서5:9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다. 고전 4:20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라고 했다. 말보다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벧전3:5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했다. 복음의 핵심을 정리한 4영리의 내용을 암송하거나, 믿는 사람들과 전도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칭찬과 존경을 받을만하게 행동해야 한다. 살전 4:12은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라고 했다.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Win the respect"라는 말이다. 존경 받을 만하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생활전도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지침은 없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 충만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 친절, 섬김, 삶의 모범, 신행일치 등 전도자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

맞춤전도

맞춤전도라는 것이 있다. 세대와 계층과 전문성에 맞춰 전도초청모임을 기획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등 연령대별로도 가능하지만, 그 연령대에 맞춰 남녀로 구분하여 초청하는 방법도 있다. 교사, 의사, 법조인, 실업인 등 전문 영역별로 초청하는 방법도 있다. 초청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동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맞는 프로그램과 전도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학교별 전도

교회의 미래인 다음세대 사역이 중요하다. 교회별로 학교별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훈련된 교사를 파견해서 저녁식사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출석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통해 친구들을 초청해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한 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한다. 이를 학교별 순모임이라고 한다. 한 교회는 학교별 순모임을 통해 한 고등학교에서만 40여명의 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했고, 그 학교에 십대선교회(YFC)와 함께 공식 기독동아리를 설립했다.

문서전도

단순한 전도지가 아니라, 흥미를 갖고 읽을 수 있는 전도지를 배부하는 것이다. 성시화운동에서는 쪽지 전도지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샌드아트 4영리 영상 전도

모래예술로 만든 샌드 아트 4영리 영상을 보여주기만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조용한 곳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면 아름다운 모래아트영상 설명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성시화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마다 전도를 통한 새 신자들로 넘쳐나기를 기대한다. 성시화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정기적으로 전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전도훈련을 받고 둘씩 짝을 지어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시민들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글 / 김철영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 주민들이 세례를 받고 있다.

▲ 빌리그래함전도대회 리모트

선교 1

선교 현장에서의 전도

일본선교의 과제 및 최근의 선교보고

글 / 조영상선교사 (일본)



▲ 후쿠시마원전피난주민들과 집회하고



▲ 잊어서는 안될 쓰나미의 위력



▲ 재난지에서 처음으로 복음전한 아베상

기독교를 한국보다 훨씬 먼저 받아들인 일본은 와콘요사이(和魂洋才:서양의 문명을 받아드리기 위해 일본정신은 버리지 않고, 기독교를 잠정적으로 활용했다는 반성의 표현)의 정략으로 선진국으로서 급속한 경제국력신장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신구교인 합하여 120여 만명(전체인구의 1%)의 기독교 인구를 가진 이교도 문화권의 미전도지역이다.

일본선교의 장해요인은 ①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수주의와 국가신도가 이세신궁과 야스꾸니신사를 상징화시켜 국교와 같은 역활을 하고 있고, 조선반도와 대륙으로부터 전래된 불교는 가족의 장례문화에 뿌리를 내려 씨족의 종교로 토착화되었고, 각종 신흥종교도 행운을 가져다주는 민간 신앙으로 토착화되어, 기독교는 단순히 서양의 종교이고 소수인의 개인종교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대다수의 국민은 유일신 사상을 가진 국가들보다 다신교를 존중하는 일본이 더 포용성이 있고 관용이 있는 자유종교국가라고 자부하고 있고,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영혼이 아니고 손,발,육체가 짓는 것이니 모든 육체가 죽으면 49일이 지나면서 누구든지 가족과 승려의 공양으로 부처가 되어 극락세계에 들어간다고 믿으니,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개념과 사후의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가르침은 쉽게 받아드려지지 않는다.

③ 또한 일본국민의 정서와 의식이 한국민과 너무 다르다. 일반적으로 선악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구분치 않는 회색문화, 과거의 잘못을 과감하게 회개하며 청산하려는 자세보다 주군이나 타인의 체면을 중시하여 수치스런 과거의 잘못은 철저히 매몰시켜 수치심으로 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수치의 문화, 서양의 문명은 우월하며 동양의 문명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하사관문화, 어느 종교이든 행운을 가져다준다면 다종교를 신봉하려는 혼합종교문화, 원만한 인간관계와 갈등없는 처세를 위하여 겉과 속이 다른 이중문화, 형식과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학적포장문화, 반도국가들 처럼 외부의 문명을 홍수처럼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받아 드리는 섬나라 빗물문화, 정중동(靜中動)의 문화, 어떤 일이든 주어진 직업은 최선을 다하고 정상에 서려는 절대장인문화, 직접화법보다는 간접화법을 좋아하며, 겸양과 검약과 개인보다 집단의 화합을 존중하려는 야마또(大和)정신과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간주하는 타인중심 집단문화, 사무라



▲ 한국합창단의 위안콘서트



▲ 여름성경학교 모습



▲ 가설주택단지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 교회의 겨울 풍경

이정신, 축소지향형문화등 표면적인 언어나 인종학적으로는 동일한 문화로 보여 지지만 한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일본을 잘 이해하고 선교하기가 쉽지 않다.

④ 일본은 고비용 저효율국가이고, 특히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가해자로서 한국국민의 친밀감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한국교회로부터는 일본에 장기적 헌신자와 선교 전문인력을 파송하여 선교의 중점국가로 지원하려는 대담한 선교정책이 없으니 일본선교는 어렵기가 그지없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일본을 선교중점국가로 여겨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으니, 요나의 순종함이 니느웨를 구원한 것처럼 한국교회는 일본민족을 사랑하며 구원받게 하는 일에 순종 헌신해야 한다.

주님은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으니 정서적인 한국인의 땅 끝인 일본을 선교지로 삼아야 하겠으며,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선한 목자가 되라고 하셨으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일본의 과소지, 농어촌, 빈민층, 노년층, 장애자, 여성들, 병약자, 어린이들의 가치를 인정하며 저들을 구원하여 양육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한국교회와 함께 세계선교를 동역하여야 한다. 일본은 이슬람 중동국가, 불교권 국가들, 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북한등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지적,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 일본교회와의 동반협력은 아시아와 세계선교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일본교회는 선교의 전환점을 경험했다

독일 교회의 본회퍼는 "교회는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다"라는 말을 했다. 현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지 않고는 이웃의 영혼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 선교는 교회가 100%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100%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희망을 전해 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2011. 3. 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교회의 희생적인 사랑의 수고는 전도의 새 출발점이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양육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는 새 전환점을 경험했다. 2012년 3월 센다이에서는 쓰나미 희생자들의 시체안치소였던 체육관에서 희망의 제전이란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가 열려 재난지역의 주민들 500여명이 결신했으며, 지난해 11월 동경의 무도관에서 열린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에서는 1480여명이 결신했다. 빌리그래함 전도팀은 그 아들 프랭크린이 대표로 있는 사마리탄퍼-스(사마리안 돈지갑)라는 구호단체를 동일본 대재난지역에 상설하여 고통당하는 주민들을 위해 온갖 구제활동을 하였으며, 예수님의 거짓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전도의 결실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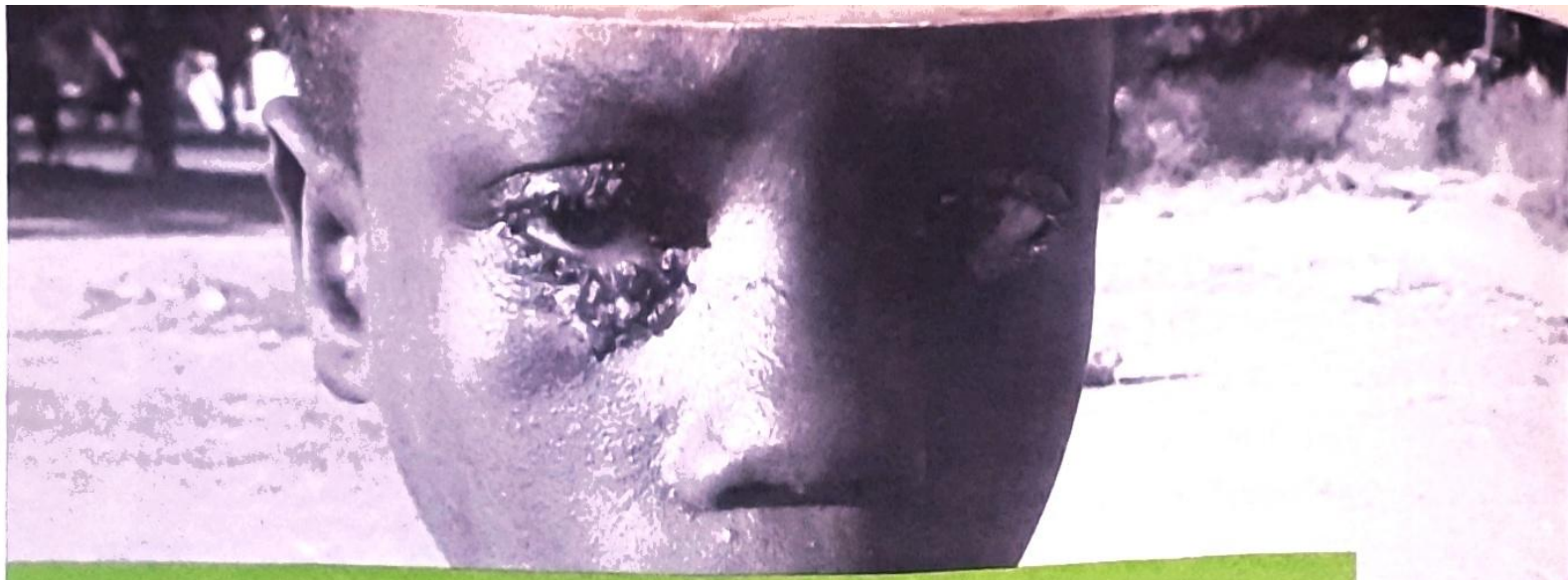
내가 5여 년간 사역하고 있는 이시노마끼 재난지역 복구지원센터 오챠꼬 하우스 오아시스도 일본교회들과 전 세계의 교회들과 구제봉사사역을 하면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쓰나미의 상처가 가장 컸던 미야기현의 바닷가 마을에는 우리교회를 비롯하여 새로운 지역교회가 10곳이나 개척되었고 지금까지 세례자64명, 결신자178명, 구도자219명, 재난지 교회에 새롭게 출석하는 주민들은 461명이 탄생되었다. (2015년 11월 미야기 미션네트워크의 중간통계) 쓰나미의 고통이 있는 곳에서 교회는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사랑의 수고와 함께 복음을 전하여 어느덧 5주년을 맞이했다.

"고통을 함께 나눈 벗은 일생의 벗이 된다"는 격언처럼 재난지역에서 우리를 만나고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시노마끼 오아시스교회의 탄생과 성장의 축복

우리교회는 식탁공동체, 봉사공동체, 예배공동체의 세 목표를 세워서, 약240여가지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선교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저들의 영혼에 평안과 삶의 희망과 능력과 새 목표를 선물로 주시고 계신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사랑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며 지역교회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불교의 장례식과 무덤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해 최근 교회공원묘지를 조성했고, 집을 잃고 가설주택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한 방문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도시의 10교회가 연합한 선교로 시민 크리스마스집회를 기획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재난을 당한 약국건물을 수리하여 임대한 임시예배당과 지원센타를 머지않아 되돌려주고, 자체적인 예배당을 신축하여 이시노마끼 시민15만명의 영혼구령을 위한 선교기지를 마련하려 기도하고 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본선교의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기를 기도하며…

986-0016 Japan Miyagiken, Ishinomaki-City,
Hachimancho 2-6-5 Oasis Church
Missionary. Cho Young Sang
(t) 001-81-90-9343-7584,
yongsangjo@hanmail.net
한국후원구좌 외환은행 071-1813189-9 조영상



선교 2

세네갈 의료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세네갈은 인구 1200만명, 면적은 남한의 2배이며 95%가 무슬림인 국가로 서아프리카에 위치해 있고 수도는 다카르입니다. 저희가 진료한 곳은 다카르에서 서울과 부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산냐마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글 / 이병일원장 (우리소아과, 춘천나눔교회 장로)





2013년 여름, 산냐마을에 의료단기선교로 다녀왔을 때 그곳은 전기도 수도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9년 전 미국인 의사가 단기선교를 다녀간 이후 한 번도 의사가 다녀간 적이 없던 마을에 저희가 단기의료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해 여름 의료사역을 마친 후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전기가 들어오면 다시 오겠다고 농담처럼 던진 말이 사실이 되었는지 한통의 연락이 다시 왔었습니다. 진료소에만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으니 어서 약속을 지키러 다시 와달라는 현지 김영조선교사님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다시 한 번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여 의료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네갈 의료선교는 출발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하던 비행기 멀미를 하여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토하고, 경유지였던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세네갈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던 열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처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가져온 유일한 한국음식 컵라면을 먹고 속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고 세네갈 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세네갈에는 밤 10시경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몸은 피로와 멀미로 망신창이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공항에서 짐을 찾는 데 개인 짐 일부만 나오고 의약품, 의료장비, 치과장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 인천공항 수화물 전산사고를 접한지라 마음이 더 초초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저희 짐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황에 갔는데 짐이 또 일부만 도착하여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짐이 도착함으로 인하여 진료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틀간의 하나님의 강제적 쉼이 허락되었고 저는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열이 심해 주사를 맞은 치과 선생님도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틀간의 쉼과 교제로 우리와 현지 사역자들은 하나가 되어 멋진 팀웍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세네갈에 도착한 셋째 날 부터 드디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인산인해, 사람들은 순수 그 자체,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는 열악한 의료환경이었고, 이슬람권 문화인 그곳에는 눈병환







자, 피부병 환자, 열나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배 아프고, 고혈압, 당뇨, 백내장, 말라리아 또 다리와 발목이 퉁퉁 부은 정도가 완전 통나무 같은 환자 등등 무수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열나고 토하고 배 아프고 처지고 탈수가 심한 열살된 소녀 환자가 실려 왔습니다. 말라리아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와 바로 주사 링거 등등 처치를 하여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말라리아 환자는 그냥 두면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약바르고 처방하고 소독하고 옆에서 통역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난장판입니다. 한참을 허리 다리 어깨 아픈 환자 침 나주랴 진료하랴 정신없고 기진맥진 한 상태인데 무릎 아래 다리가 아파 못 걸어 업혀온 십삼사세 남자 아이가 왔습니다. 진찰하려고 무릎 살짝 손대자마자 소리 지르며 아프다고 난리입니다. 주사처방 약처방 드레싱 등등 치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소년은 진료를 못받았다면 염증이 심하여 걷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다리절단 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귀국 후 현지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대기하던 환자들이 진료 못 받을까봐 염려하는 소리가 진료실까지 들려옵니다. 진료실 들어온 환자들은 마치 천국 온 듯 환한 웃음 띤 얼굴 모습입니다. 그 얼굴을 보며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습니다.



진료가 끝난 다음 날 진료소 정리를 하고 산냐마을을 방문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뭐라 얘기 하길래 통역을 통해 들어보니 등 허리가 아파 그동안 잠 한번 제대로 못잤는데 어제는 안 아파 너무 잘 잤다고 합니다. 3일전 다리아파 못 걷던 환자가 안 아프고 다 나았다고 마을 이곳저곳을 뛰어 다니고, 또 다른 사람은 허리아파 밭일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 하루종일 밭일을 했다고 좋아합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을 추장 동생은 이가 아파 그동안 잠 한번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다고 치과 선생님 손잡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먼 땅 이슬람권 아프리카에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세네갈을 떠나오던 날 저희 팀 저녁식사를 사 주신 갈치사업을 하시는 김집사님이 저녁때부터 목이 안돌아간다고 하여 식사도중 식당에서 공항가기 20분전에 마지막으로 침놔드리고 목 돌려보라고 했더니 돌아간다고(하나님의 은혜! 세네갈빨?) 신기해 하시던 모습을 끝으로 세네갈을 떠나 터키로 이동하였습니다.

우리 단기 의료선교팀을 파송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춘천나눔교회 피종호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든 일정 계획과 진행 그리고 팀 교육을 맡아준 김기동전도사님, 현지의 모든 사역을 총괄하신 김영조선교사님, 기온은 높고 통풍이 안되는 진료실에서 치과 치료후의 잔여물로 인한 악취에 고생하며 진료한 김동석원장님과 치과팀(박도근,유미나,전수현)과 하루종일 서서 약조제하고 복용법 현지어로 웃으면서 설명하느라 애쓴 김윤아 문병승 이익래 김수, 진료 보조하랴 피부소독하랴 알코올솜 만드랴 사진찍으랴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티 안내고 오히려 다른 우리 팀원 걱정하는 내 아내 허근옥 권사, 통역하며 진료 보조해 주신 김영미선교사님과 김영조선교사님, 환자 접수와 혈압과 체온 체크 해 준 이순복선교사님과 최경애집사님, 오전 오후엔 청소년 캠프하고 저녁때부터는 의료팀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일한 예희 태윤이 지후 재민이 재영이, 또 학기 중인데도 사역에 함께 하며 질서를 책임져준 다카르대학생 지체들 12명! 우리 모두는 세네갈 단기 의료팀으로 하나님의 멋진 드림팀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생명을 세네갈 다카르 공동체 지체들과 산냐마을에 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곳에 복음의 부흥이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코리아 개더링에 다녀와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 온전한 모습으로 ♩ ♪ ♬~~~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새터민 아들이 자주 부르는 CCM이다. 목숨을 걸고 북한 땅을 넘어서 자유를 선택한 아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고 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살고 싶다는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이다. 단지 새터민뿐 아니라 아마도 온전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일 것이다.

지난 1월 19일(화)~22일(금)까지 한 주간 나는 부산에서 있었던 2016 Korea Gathering(코리아 개더링)에 다녀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사역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할까? 등등으로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며 그 분의 대답이 듣고 싶었다. 부산에서 개더링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는 기도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도 참석하게 해 주세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일 매일 나무하고 밥하고 공동체 가족들의 마음을 살피느라 조금은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지만 공동체를 떠나서 쉼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기에 그저 마음속으로만 갈망하고 있었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아차린 남편이 한 주간 쉴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까 개더링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쉼을 허락했다. 어찌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그런데 개더링이 뭐야? 사실 나는 개더링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 뭐하는 자리인지? 누가 모이는지? 어디서부터 시작 되었는지? 어떤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단지 하나, 아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이 개더링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국가와 민족을 뛰어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적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생명처럼 여긴다는 것을 들었기에 그동안 나도 함께 기도해 왔었다. 그래서 나는 귀하게 얻은 소중한 쉼의 시간을 개더링과 함께 보내기로 마음을 정하고 일단은 등록을 했다.

개더링은 전직 의사였던 이집트 사람 데이빗 데미안 목사가 1995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캐나다에서 사는 동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시작 되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다가 당시 캐나다 땅에 이민해 온 중국인들을 만나게 되며 그들과 또 함께 기도하였다. 성령을 따르는 이 소수의 모임은 서로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같은 성령께서 함께 일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하나됨을 느끼며 계속해서 타이완, 홍콩, 일본, 마카오, 독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싱가폴, 브라질, 베트남, 이스라엘 등의 나라로 그 모임을 확산 시켜 가고 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렸지만 실은 그동안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많은 신실한 중보자들이 한국의 개더링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것을 나는 이번 개더링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개더링은 말 그대로 함께 모이는 것이다. 성령 안에서 국가와 민족을 뛰어 넘어서 함께 모이고 세대와 세대가 통합되고 부모와 자식이 연합하고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모이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모여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녀 됨의 삶을 누리며 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함께 연합하는 자리이다. 지금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하는 세대의 끝자락에 서있다. 너무도 영계가 혼탁하다고, 교회를 가도 하나님을 느끼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고,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똑바로 보고 싶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떻게 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대답을 이번 개더링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다.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나는 19세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고 신학교를 가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화천 아바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끊임없이 갈망해 왔던 것은 성령님이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오셔서 그동안 나는 깊은 바다에도 높은 산에도 때론 폭풍 가운데도 아름다운 곳에도 광야와 사막 가운데서도 살아 낼 수 있었다. 개더링은 참 풍성한 놀이터이다. 성령 안에서 마음껏 춤추고 뛰고 울고 웃고 기뻐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 되고 ~~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임재의 시간이었고 공간이었다. 나는 한 주간 참 잘 쉬었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리가 더욱 분명하고 크게 들려졌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개더링에 참석해 보기를 강추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듣고 싶고, 진정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개더링에 가보라! 가보면 알 수 있다. 멈출 수 없는 성령 안에서의 충만함을 그러나 개더링 메니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개더링은 중독성도 강하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개더링 분위기를 찾아 따라 다닌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개더링의 생명은 초월적인 성령님이시다. 마지막 때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개더링에서 함께 가까이 계셨던 성령님은 지금 이 아침 내 마음 안에 일상으로 돌아온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넘어서 내 나라를 넘어서 북한 땅으로, 북한 땅을 넘어서 아시아와 세계 열방으로, 이스라엘까지 더 크게 연합하여 모이게 하시고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지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버지 똑바로 살게 하시니 감사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더욱 내 안에서 충만하게 사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글 / 김정옥사모(아바공동체)

예향

미국 영어사전에 ' 티보잉 '(Tebowing)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몇 년 전 등재되었다한다. 이 단어는 미국 최고의 크리스천 미식축구선수인 티보의 이름을 따서 ' 티보식 기도 ' 라는 뜻이다. 티보는 경기때마다 "요한복음3:16 "을 눈밑에 새기고, 골을 넣을 때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세리머니를 한다.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텔리비전 화면에 선명하게 잡힌다. 그가 나서는 경기는 승률이 대단히 높다. 그는 팀이 위기에 처할때 마다 자주 구세주처럼 등장한다. 마치 요3:16처럼 말이다. 경기에 패한 상대팀 감독들은 변명처럼 말한다. "하나님이 돕는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러면 당신도 높아질것이다.

취재 /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만평



우리 인생의 버팀목은 누구일까요?

고난이 밀려오고 아픔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해야 한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6

그림, 글 / 이관형 작가 artpam@hanmail.net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49차 춘천모임



성훈경 목사 TWR-KOREA 북방선교방송

누가복음 10장 27절

통일의 열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훈경목사는 OO에서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하실 것을 마음에 받고 북방선교방송사역을 시작했으며, 북한지하성도들의 양육과 훈련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라디오 방송을 지금까지 20년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 1월 초 KBS에서 "오늘, 내일을 말하다"라는 특집을 통해 한국사 전문가와 미국 한반도전문가의 강의가 있었는데, 주제는 "통일"이었다. 첫 강의의 내용을 보면, 한국의 젊은이 가운데 10명중 6명이 아직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며 관심이 없고, 통일되면 내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당위성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민족사적 당위성이다. 한반도가 일제이후에 독립을 했으나 완벽한 독립을 하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로 대변되는 사회주의와 미국을 대변되는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싸움을 6.25 때 이 땅에서 대비전을 치렀고, 그로인해 여전히 두국가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민족사적인 당위성 때문에 한반도는 통일을 해야 한다.

둘째는 인도주의적 이유 때문이다. 6.25전쟁으로 이산가족이 생겼고, 이산가족의 연세가 90세이상 되어간다. 이 분들이 살아서 다시 만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돌아가기 전에 아픔을 씻어 주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산가족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통일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분단 상태에서 풍부하게 자랐기에 통일이라는 이야기가 머리로 이해되나 가슴으로 오지 않는다. 비난할 수 없다. 이들을 설득하려면 피부에 와닿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비용인데, 통일비용은 10-20년정도 들지만 분단비용은 영구적 부담이기 때문이기에,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을 비교하면 통일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삼성전자도 한계가 왔다고 말한다. 새로운 돌파구가 있어야 한다. 통일을 하게 되어 한국의 자본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게 되면 경제적인 돌파구가 된다. 그 혜택은 후대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하기 위해서는 첨언하는 것이 있다. 우리 민족이 통일되었던 시대를 보면,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로, 후삼국으로 나뉘었다가 고려왕건에 의해 통일되었다. 고려왕건은 유화책을 썼다. 백제 마지막 왕을 아버지로 삼고, 아들은 아들 삼았다. 그리고 정략결혼을 했다. 정략결혼은 "관용"과 "포용"정책이었다. 화해와 용서가 기본이 되었다. 이것은 "애민"으로 가능했다. 그 때는 왕 한사람만 애민을 가지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 한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온 국민의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애민사상'은 기독교의 사상이다. 성경을 줄이면 십계명, 십계명을 줄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본문 말씀이다. 또 네 자로 줄이면 "경천애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의 문제도 있지만 남북간 원한의 아픔이 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아픔은 세월이 약이 되어 용서가 되고 잊혀져 가고 있으나 또 다른 원한이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들이 탈북하며 얻게 되는 원한들, 다시 이산가족이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예수 믿고 나서부터이다. 주님이 용서할 수 힘을 주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온 탈북자들에게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 너도 용서하고 사랑해주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통일의 열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분단된 민족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통일을 이루실 것이다. 결국은 통일을 향해 가는 길이다. 지금은 분단되어 있으나, 하나님이 통일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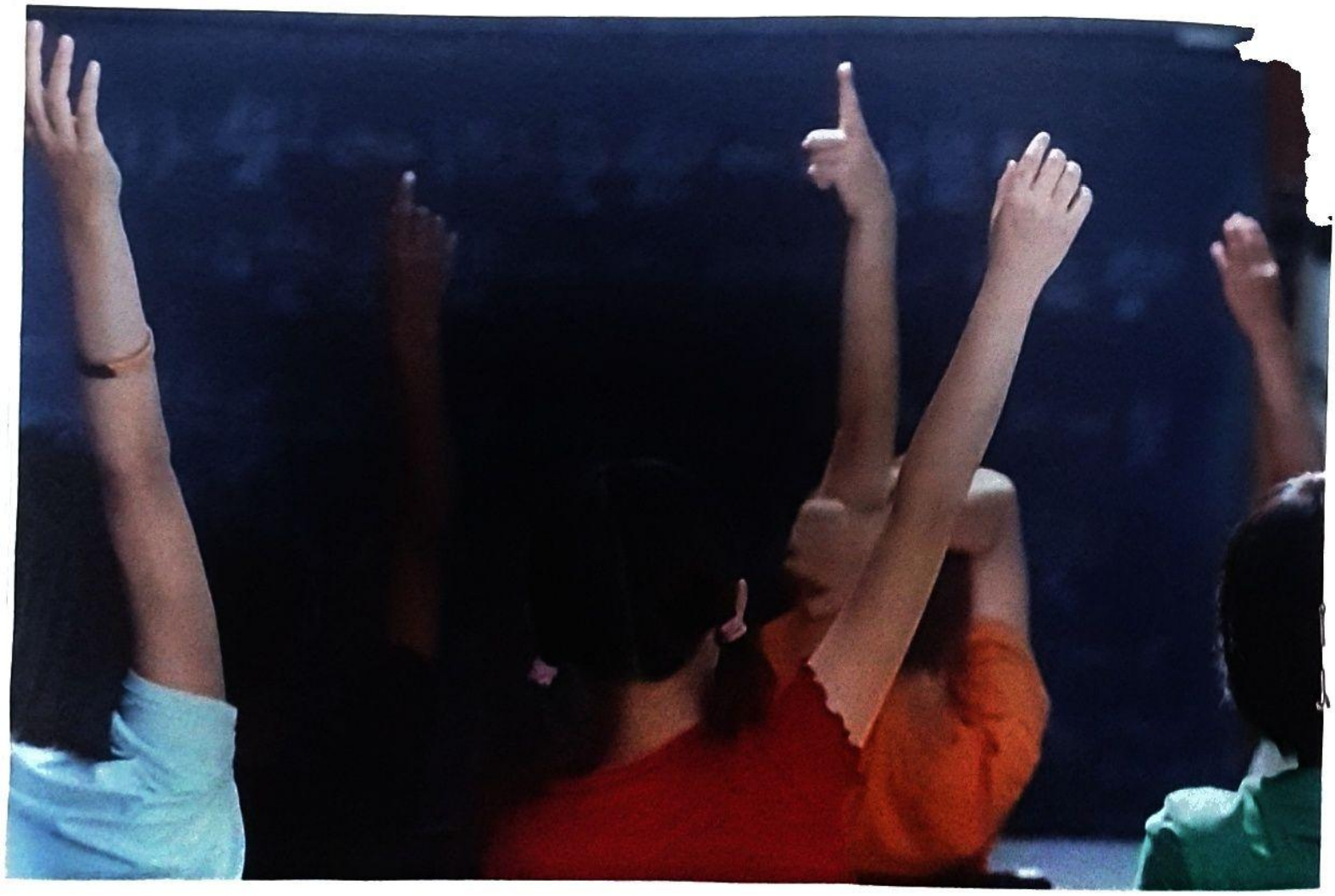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북한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 그리스도 사역을 하는 건데, 그들을 보는 시각은 진보 보수로 나뉘어 본인들의 맘에 안드는 부분 때문에 재정 후원도 어렵고 일꾼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이 일을 지속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신다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 사역을 위해 사람을 세우신다. 통일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후원은 큰 힘이 된다.

또 하나는 우리 이웃에 와 있는 탈북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신 것처럼 성령이 힘을 주신 것처럼 하라. 실패했다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 이유는 그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이산가족으로 만든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열쇠이다.

글 / 이은정 기자 graceyh02@hanmail.net

하브루타를
통한 대화식 통일 교육
– 모세스쿨 –

춘천 에벤에셀 기독교 연합회 모임은 다음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매월 1회 연합 찬양집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영적 도전을 제공하고, 5주간의 '모세스쿨'을 통해 유대인의 학습법인 '하브루타 대화법'을 익혀 건강한 신앙을 세우기 위한 초석을 다집니다.



들어가는 말

요즈음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들이나 교회를 향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이다.' 이런 주장은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하 '다음세대')의 두드러진 감소현상은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뜻있는 목회자들은 다음세대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도 이런 고민과 방법을 찾으려는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작지만 뜻 깊은 연합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춘천 에벤에셀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 바로 그 연합모임입니다. 10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향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춘천 에벤에셀 기독교 연합회 모임은 다음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매월 1회 연합 찬양집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영적 도전을 제공하고, 5주간의 '모세스쿨'을 통해 유대인의 학습법인 '하브루타 대화법'을 익혀 건강한 신앙을 세우기 위한 초석을 다집니다. 또한 10주간의 '전도학교'를 통해서는 실질적인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ision Trip(선교 여행)을 통하여 민족 통일에 대한 넓은 시야와 간절함 더 나아가 열방을 마음에 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세스쿨(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예광침례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진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세스쿨이란?

모세스쿨은 대화식 통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백성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분단의 민족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민족 구성원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이 한민족을 '통일'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주니어 쥬빌리의 모세스쿨은 청소년들에게 '대화식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14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여호와의 진노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기를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묻기도 하고, 간구도 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를 모면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후 모세는 산을 내려와 백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상숭배 죄에 관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세스쿨은 대화의 방법을 체득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딥톡, 통일프레젠테이션, 모세트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딥톡은 사고하는 대화법을 익히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통일프레젠테이션과 모세트립에서 활용되고, 체득됩니다.

딥톡은 주제문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Jumping, 주제의 내용을 파악하는 Searching,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Talking,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Hopping, 그리고 상호의 주장을 합의를 통해 해결책으로 도출하는 Docking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대화자들은 주제의 문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전개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도움으로 더 좋은 문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딥톡은 사고해야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더 좋은 행동을 촉구하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의 대화연습을 확장하는 것이 통일프레젠테이션입니다. 청소년들은 대중에게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딥톡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연습을 하며 자신감을 키운 청소년들은 대중을 향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통일에 관한 주제는 전 국민에게 밀접한 문제로써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통일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통일에 대한 신앙인으로써의 입장을 정립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거나 반박합니다. 이렇게 통일프레젠테이션은 통일시대 민족의 지도자로 나갈 길을 제시합니다.

모세트립은 중국이나 공산주의에 뿌리를 가진 국가들을 여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부터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이런 국가들에서의 비전트립은 현시대가 요구하는 주도적인 학생으로의 준비과정이며 새로운 시대인 통일시대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모세스쿨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볼 줄도 알고 또는 북한의 입장이 되어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미지의 세계인 남북한 통일과 통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스쿨의 학생들은 하나님과 먼저 대화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을 아우르기 위해서 민족구성원들과도 대화합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학교와 사회에서도 대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대화하는 청소년들을 키우는 것이 모세스쿨의 목적입니다.

나가는 말

세상 문화는 너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빠르게 바뀌어 가는 세상 문화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빠르게 세상 문화에 적응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일방적인 주입식 신앙교육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신앙교육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올바르게 신앙교육을 시켰다고 자부하지만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세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이고 심도 깊은 복음의 대화를 통해 능력의 복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능력있는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첫 걸음입니다.

글 / 박찬규 목사(사랑나눔교회)

새해(2016년) 어떤 말을 하고 살까?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있다.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도 달라진다고 한다. 희망의 말, 절망의 말, 사랑의 말, 비난의 말 등 모든 말들이 모여 삶의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 낸다. 우리가 매순간 사용하는 말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어서 언제나 결과(씨)를 만들어 놓는다. 단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늘 칭찬받는 사람과 늘 지적 받는 사람은 그 성격조차도 달라진다고 한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는 말도 있듯이, 한마디의 말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희망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을 해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희망과 축복의 말을 해주면 사람들은 표정이 아주 밝아진다. 가족들에게도, 직장동료들에게도 가까이 만나는 이들에게 늘 희망의 말을 해주면 자신의 마음에도 희망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진다. 불평을 자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도리어 자신이 잘못을 가리기 위한 변명을 한다거나 비난과 비판을 일삼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피땀과 눈물을 흘리며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남을 쉽게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말로 상대의 단점을 끄집어 내기보다는 늘 장점을 찾아내는 습관을 갖는 올 한해가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행복을 주는 말, 사랑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을 많이 할수록 좋다. "그대가 있어 참 행복하다"고 하면 말을 하는 사람도 듣고 있는 사람도 기분이 좋다. 언제나 그때를 기억하면 입가에 웃음이 절로 인다. 우리는 다시 보고픈 사람이 될 정도로 기분좋은 말을 하도록 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진다.

대화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준다. 우리의 삶은 이야기들이 만들어가는 바다와 같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상대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말만 쏟아 놓으려 하지 말고 타인의 말을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어야 한다. 관심을 갖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다. 어느 학자가 말했다. "최악의 범죄는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다." 또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무책임, 무감동, 무의식, 무관심한 시대라고 말들을 한다. 사람들 사이에 그 만큼 거리과 간격이 있다(크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모든 일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만나면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고, 떠나가면 그리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화를 나누고 나면 아쉬울 정도로 말에는 낭만과 멋이 있어야 한다. 2016년에는 우리 '크리스챤' 들만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본다.

글 / 이영규장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강원지회장, 석사감리교회)

시대가 원하는 사람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의 "동방순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동방으로 순례를 떠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순례자들로 모여듭니다. 진리를 찾고자 참여하는 사람, 돈을 찾고자 떠나는 사람, 사랑을 찾고자 참여한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특이한 사람은 레오(Leo)라는 하인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잘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헌신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노래를 불러주고, 누가 아프면 찾아가 옆에서 간호해주고, 전체 분위기가 심심하고 따분하고 우울해지면 광대 역할을 자처합니다. 레오는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항상 묻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도 레오가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레오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레오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자 그만 포기하고 동방순례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레오가 없으니 사람들은 더 이상 기쁘지 않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더 많은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결국 동방순례가 해체되고 다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레오의 정체가 드러나지요. 레오는 동방순례단의 하인이 아니라, 순례 교단의 리더(Leader)였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동방순례"에서 말하려고 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지도자란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또한 자기 자리보존을 위해 민생경제를 아랑곳 하지 않는 우리들의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온통 술렁이고 소란스럽습니다. 온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러한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부터 유교 전통적인 사회라, 항상 입신양명(立身揚名)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즉 자리가 주는 특권과 이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을 묘사할 때도 "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돈이나 권력내지 영향력 등의 이익이 있는 자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방순례"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자리가 주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리가 아니라 역할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도자가 역할을 감당하면,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순신장군께서 모함 때문에 "장군"이라는 자리를 잃어버렸지만, 전쟁 중에 필요한 역할(백의종군白衣從軍)을 감당하니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지키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더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실제적인 리더(Leader)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3절,44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할이 "섬김"(Servant Leadership)입니다. 오늘날 자리가 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리는 없더라도 섬기려는 역할의 지도자들이 많아질 때, 선진한국, 통일한국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글 / 구세군춘천교회 담임사관 정성욱

T4T

훈련자를 훈련하라!

요즘 침체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들이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도폭팔, 4영리전도, 백지전도법, 이슬비전도편지, 관계전도법 등의 전도프로그램은 물론이거니와 예수초청큰잔치, 총동원전도훈련, 능력전도, 전도축제 등등 이름도 생소한 전도컨퍼런스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결과가 지지부진하여 지속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이것도 조금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다가 전도에 대해 안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냥 교회 움쿠리고 있으면서 교회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다. 이 지상명령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사고 세 가지를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 첫째, '오라'라 아니라 '가라'고 하셨다. 올 때를 기다리지 말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한다. 둘째,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셨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과 전해도 안될 사람을 판단하여 소수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핑계를 댄다. 셋째, 교회 출석자가 아니라 '훈련자(제자)로 만들어라'는 것이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신자들에게 주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고만 가르치기 때문이다. 말 할 필요도 없고, 순종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그저 들으라고만 한다. 듣고 또 듣고 듣기만 한다. 순종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이런 것이다. 주님께서도 명령하신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다.

영어로는 Training For Trainers(T4T)는 훈련자를 위한 훈련이다. 이것은 선교사였던 스티브 스미스와 잉카이가 선교지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이것은 교회개척운동으로 이끄는 훈련자를 배가 증식하는 과정이다. 왜 훈련자를 훈련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교회의 문화가 어떻게 길들여졌는가 하면, 대






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듣기만 하였다. 들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많은 제자훈련이 있었지만 대부분 순종하기 보다는 지적인 만족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 퇴색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자라는 말 대신에 훈련자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훈련자라는 말이 제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제자라는 말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훈련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훈련자를 위한 훈련(T4T)의 기본적인 훈련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T4T의 훈련은 먼저 개인전도를 훈련하는 것이다. 개인간증을 통해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훈련을 한다. 그 다음에 복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한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교회나 성경공부나 무슨 수련회나 이런 교회적인 용어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되도록 나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해야 한다. 이건 교회 안에서 하는 간증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하는 간증이므로 교회 이야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대한 간증에도 예수님 믿은 후에 교회를 어떻게 다녔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생애가 어떻게 변했느냐에 대해 간증해야 한다. 그리고 간증의 길이도 약2-3분 안에 마치도록 간략해야 해야 한다. 5분 10분이 넘어가면 안된다. 요즘 같이 바쁜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이야기를 10분간 들어주질 못한다. 길어지면 지루해지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분산된다. 그러니까 2분 3분간만 중요한 것만 아주 요약해서 전해주면 된다.

② 개인간증은 아는 사람에게 한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전을 해야 한다. 전도법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어려우면 새신자가 전도하지 못한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전도방법이 어려우면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전도는 전문가들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③ 그들이 아는 사람의 명단을 적어 보도록 한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명단을 적어보게 한다. 그리고 기도하여 우선적으로 전도해야 할 사람의 명단 5명을 정하게 한다.

④ 매주 매주 5명씩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야 한다.

⑤ 훈련자는 훈련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모범은 아주 단순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복잡하면 안된다. 기도할 때도 단순하게 기도해야 한다. 복잡하게 너무 길게 기도하면 안된다. 찬송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여러 곡을 부르지 말고 단 한 곡만 잘 배울 수 있게 한다. 성경말씀을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도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를 인도할 때 너무 긴 성경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1-3절 내외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 안에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단순하게 가르쳐야 한다.

⑥ 상호의 책임을 누려야 한다. 예를 들어 제가 지도하는 그룹에 5명이 있다고 할 때, 자기가 먼저 자신의 보고를 하고, 그리고 한 사람씩 각 자에게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간증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어떠하였습니까?' 각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처음에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렇게 할 때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 대답할 게 없는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다음으로 패스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고 말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상호책임인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냥 소그룹 전체에게 '누가 전도했습니까?' 물을 때,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없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 먼저 지도자가 보고를 하고 그

리고 각 사람에게 물어보고 대답하게 해야 한다.

⑦ 새로운 성경공부를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이 성경공부는 대화식 성경공부가 아니다. 그때 훈련자가 가르치는 것이고 훈련생들이 내용을 적어놓는 것이다. 10분-15분 정도 가르치는데, 모든 성경말씀을 다 적어놓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적어놓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⑧ 다 가르친 후에 둘씩 둘씩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연습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두 사람에게 들었고, 또 한 사람에게 전해 보게 한 것이다. 우리가 들으면 잘 잊어먹지만, 한 번 말을 해서 가리친 것은 더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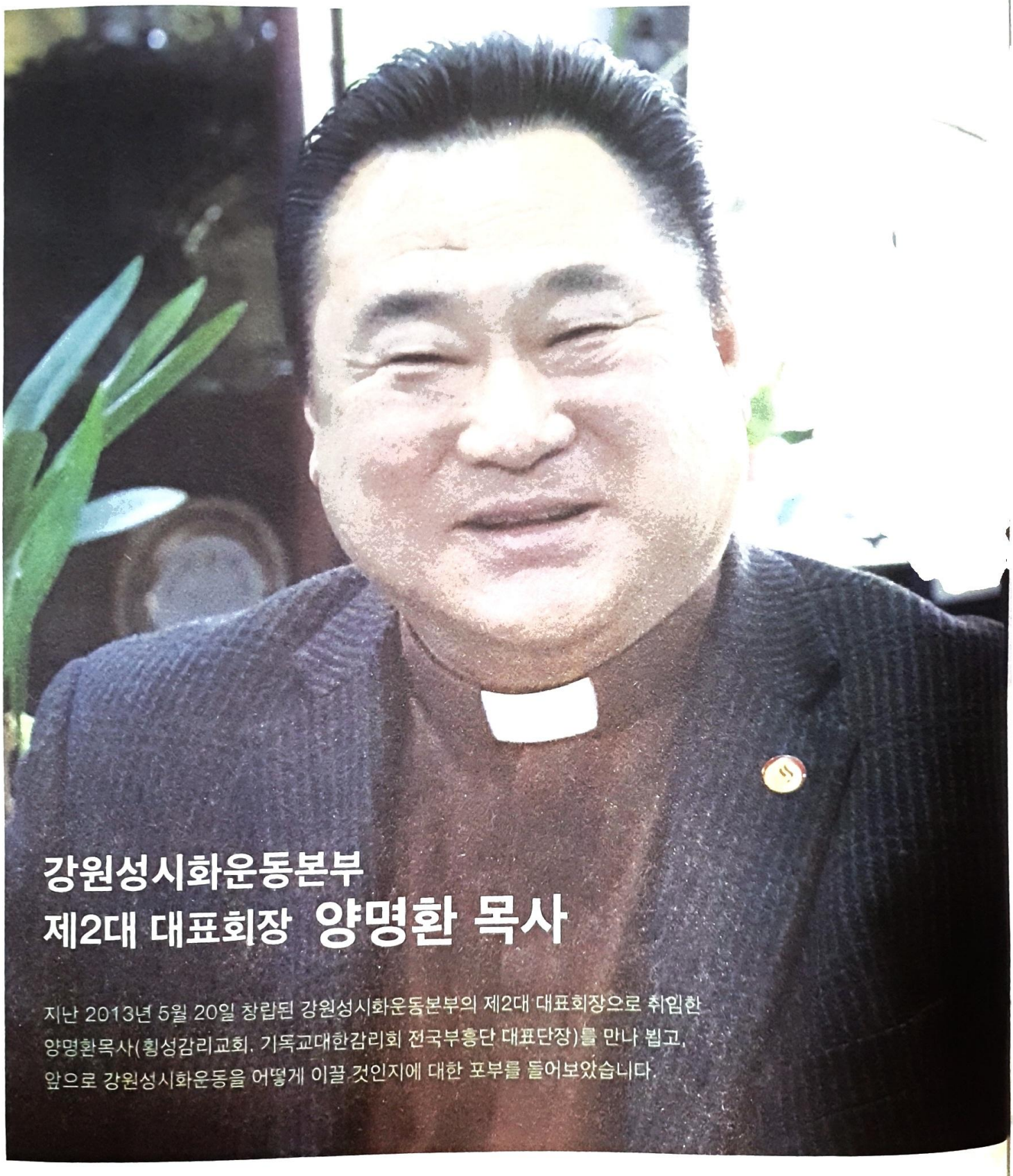
이런 훈련이 약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모임을 마칠 때면 자신감있게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1세대 훈련자 모임에서 훈련생들이 전도하여 얻은 새신자는 1세대에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생이 개척한 2세대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복음이 4세대까지 어떻게 뻗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항상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에너지의 80%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 모임도 2세대,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모든 기도와 전도를 집중해야 한다.



이 훈련은 사도행전 교회에 일어났던 제자의 혁명이 다시 한 번 일어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제자의 재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새신자를 양육해서 새신자들도 빨리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중국이나 요르단이나 필리핀 같은 곳의 특징 중의 하나는 열정적인 기도와 풍성한 전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모쪼록 춘천의 교회들이 열정적인 기도와 풍성한 전도가 넘쳐나길 소망한다.

※이 훈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T4T〉 요단출판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글 / 최영조 목사 (춘천성시매거진 편집장)



강원성시화운동본부 제2대 대표회장 양명환 목사

지난 2013년 5월 20일 창립된 강원성시화운동본부의 제2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양명환목사(횡성감리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부흥단 대표단장)를 만나 뵙고, 앞으로 강원성시화운동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포부를 들어보았습니다.

Q 먼저 지난 강원성시화운동본부 2015년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피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이 성시화운동에 앞장서시게 되었는데 소감과 각오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70년대 초 춘천에서 시작한 성시화운동이 그동안 국내 지역도시 뿐만 아니라, 국외 여러 나라 많은 도시에 확대되어 성시화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시화운동에 적극성을 띠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횡성지역에는 홀리클럽을 시작으로 성시화운동 조직을 만들어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운동은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해야 할 일이며, 특별히 목회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 도시(시, 군)단위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동참을 호소하며 성시화운동이 강원도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Q 강원도에는 현재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하여 원주, 동해, 횡성의 4개 시군에 성시화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앞으로 성시화운동을 통한 강원지역 복음화를 위해, 미조직된 시, 군의 성시화운동조직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40년 가까이 감리교 전국부흥단 활동을 해 왔고 현재 제37대 단장으로 전국 10개 연회 대표 총괄단장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동부연회(강원지역) 23개 지방회에서 임기 2년(2017. 4월까지)의 감리사 협의회



장직을 맡아, 동부연회 680여개 감리교회 12만 교인을 15만으로 하는 부흥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 지역내 전체 기독교세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각 시, 군 지역 감리교를 중심으로 조직체를 결성해가면서,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CTS, CBS 방송매체와 협력하여, 150만 강원도민의 복음화를 위해 성시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도내 18개 시, 군 중 아직 성시화운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지역은, 평신도 중심의 홀리클럽을 만들어 이 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시군 기독교연합회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시군 기독교 연합회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기념, 절기 행사 등) 이외, 시 군민을 위한 기독문화행사, 시 군정을 도와 시 군민을 섬기는 행사, 잘못된 관행이나 사회제도를 바꾸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 차원의 성시화운동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법등, 시 군단위 성시화운동조직 결성을 위해 시, 군 지역 기독교연합회와 적극 협력 해 나가겠습니다.

Q 앞으로 강원지역성시화운동을 어떻게 펼쳐 나가실 계획이며,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주최로 개최하고 있는 「국제성시화대회」는, 그 동안 국내에서 인천, 서산, 서울 등지에서 개최한바 있고, 이 운동의 발상지인 강원(춘천)에서의 개최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현재 성시화운동본부가 조직되어 있는 4개 지역(춘천, 원주, 동해, 횡성)에서는 자체적으로 선교대회, 전도운동, 기도운동, 구제활동 등 사회책임 운동은 물론,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하는 국제대회, 통일구국운동 등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단위 성시화운동도 역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섬김의 도리를 다 할 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횡성성시화운동본부의 경우 창립한지 3년차에 불과하지만, 3.1절, 8.15기념행사와 기독교절기행사인 부활절과 성탄트리점등행사는, 성시화운동본부와 기독교연합회가 연합하고 평신도 성시화운동조직인 홀리클럽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독교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성급한 생각으로 여겨집니다만, 장차 강원도 전 시,군 지역단위로 성시화운동조직이 다 세워지게



되면, 지리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등 3개 권역별로 성시화선교대회를 열게 하므로 초대교회의 성령운동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다양한 전도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원전역의 복음화와 150만 도민의 영혼구원을 앞당기는 운동으로 발전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우선 할 수 있는 연합운동으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서 주관하여 지원하는 "비. 행. 기 생명축제"를 춘천, 원주, 동해, 횡성 4개 성시화운동본부 연합대회로, 아니면 각 성시화운동본부단위로 몇 개교회

가 연합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지역 국제대회 개최문제는 성시화운동의 발상지로서의 명분은 있지만,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며, 중,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숙의하면서 기도해야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Q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에서는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공공정책을 마련하여, 여, 야 정당과 총선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언론에 발표하므로, 기독교인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겠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한 지방적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는 일찍부터 이슬람교와 할랄, 교회세금부과, 이단 신천지, 동성애 등 반기독교적인 문제에 대한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서 주관하여 다루고 있는 기독교공공정책 및 사회현안문제 공공정책을 적극지지하며, 우리지역 출마자에게 당당하게 건의하여 우리 지역 기독교인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일에 강력히 대응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Q 국내외 성시화운동 일꾼과 가족들에게, 특별히 춘천 성시화운동본부와 강원지역 기독교인과 성시화운동 일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붙잡고, 국가, 세계의 모든 생활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도시단위의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도시에 전하는" 3전 운동을 펼쳐, 주의 뜻을 이루게 하는 성시화운동에 온전히 헌신하시는 국내외 성시화운동 동역자님들, 특히 우리 강원지역 목회자 여러분과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 원주, 동해, 횡성성시화운동 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 수부도시 춘천은 이 나라 민족복음화를 주창하신 고 김준곤 목사님의 꿈과 비전에 따라 성시화운동을 처음 시작한 곳이니만큼 성시화의 모델도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했던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도시(시, 군)단위의 성시화운동을 일으켜 강원도 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로부터 칭송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강원지역성시화운동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는 세계성시화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모든 동역자님들께서 함께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 김영명 기자 kym_5771@naver.com

선한 청지기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헌신하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신임 관장 김욱님을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에 롯데마트 건너편 강남동주민센터와 함께 있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을 찾았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은 이랜드에서 운영을 하는 복지관으로 춘천에 들어와 보금자리를 편지 약 4년이 되었다. 그 동안 수고하던 조희정 관장이 서울로 자리를 옮기면서 올해 김욱관장님이 새로 부임했다. 남부노인복지관 사무실의 문을 열 때면 언제나 직원들의 따뜻하고 밝은 웃음의 환대와 인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도 직원들의 밝은 미소와 함께 아직 춘천을 잘 모르지만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새 일을 펼치시려고 준비 중인 관장님을 만날 기대감과 설레임을 느끼게 되었다. 부임하신 지 20일만에 만났는데, 각자 바쁜 일을 하던 직원들과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다 자리하게 된 관장님실에서 환한 웃음과 함께 대화를 시작했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은 4년동안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다. 처음에는 강남동사무소 한 켠에서 조그마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동사무소가 너무 왜소해 보일 정도가 되었다. 등록하고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에 의해 지나 다닐 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 차서 시장통처럼 북적이며 비좁아진 터에 이젠 오히려 동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회원들이 넘쳐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작년 2015년부터는 회원이 1만명 이상으로 등록하여 전체 52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매일 1천여명 이상 함께 하며 명실공히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자리 잡고 있다.





춘천으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인사말씀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의 사업을 소개해 주십시요.



평안하신지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신임 관장 김욱입니다. 저희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이 행복하고 희망찬 노후를 만들어가는 미션을 가지고 "호텔 그 이상의 서비스"로 섬기려 노력하는 복지관으로 이용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 후원 및 자원봉사자 분들을 고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의 사업은 이용하시는 1만 여명의 어르신께 52개 과목의 평생교육사업, 노인사회활동(일자리)지원사업, 위켄시니어봉사단, 자원봉사 및 후원사업, 건강증진사업, 경로식당 운영등 복리후생사업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호텔 그 이상의 서비스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복지사업과 재가복지사업, 위기가정 지원사업등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의 소외 이웃과 어르신에게 재활의 기회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시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옥관장님은 원래 다른 부서에서 더 높은 직급 더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전임관장의 소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복지기관에 헌신하게 된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고 하시는데 들려주세요.



우리 복지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특화사업은 이랜드 재단의 중점사업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회복지에 소명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혼 초 저희 부부는 나눔을 위해 아내와 함께 매월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 연 말에 후원을 시작했는데, 마침 제가 근무하던 이랜드 패션사업부에서 정기 후원하던 가정에 가장이셨던 아버지의 허리 수술비를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허리 수술 후 기적같이 건강이 회복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지인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허름한 중고 트럭을 마련하여 배달하는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이기며,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작은 나눔이 마중물이 되어 소외된 가정과 사람을 일으키며 회복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면 좀 더 나은 곳, 좀 더 살만한 우리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작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품어왔던 이러한 소망을 이제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에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랜드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이랜드 그룹의 제 1 경영이념 "나눔" 따라 매년 순익의 10%를 사회 환원을 위해 기부한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루어 소외된 이웃의 선한 이웃이 되고 자 설립한 것입니다.

이는 대상자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나눔 활동과 투명하고 정직한 회계 및 기부자를 위한 정기적인 피드백시스템, 전문성을 갖춘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치와 감동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회공헌사업은 이랜드 그룹과 함께 30년간 지속해온 "위기가정지원사업"으로 가정 내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장애등으로 위기를 겪는 사각지대의 가정을 지원하는 선발하여 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난 7년간 2,208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호텔과 같은 서비스, 가족과 같은 복지관"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업복지재단 최초로 복지관 10곳과 요양원 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국내외의 선교사 및 사역자, 국내외의 의료취약계층의 무료검진 및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이랜드크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은 북한 동포를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전문 NPO와 협력하여 매년 식량, 의약품, 의류, 생필품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빈곤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 긴급구호키트, 의수족, 의류지원을 하고 있고 베트남, 인도, 사이판, 스리랑카에 장학사업, 의료지원 및 사회 인프라 개선 사업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랜드복지재단과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은 그룹의 "벌기 위해서 아니라 쓰기 위해서 일한다"는 이념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구현하는 기관으로 "청지기 정신"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과 함께 와서 대담을 나누는 한 켠에는 관장님을 환영하는 작은 꽃 몇 송이가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청초하게 피어 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의 꿈을 펼치기 위해 성시화의 고향 춘천에 자리를 편 김욱관장님의 책상 위엔 많은 직원들과 함께 할 새해의 계획들이 오고 간 흔적들이 보인다. 그의 환한 미소 속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숨은 열정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게 될 복지관의 내일이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시간이다. 어르신들이 복도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커피를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면서 푸근함을 느끼며 자리를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복지관이 정겹게 느껴졌다. 작은 사무실 한 켠에 꽂혀 있는 소담한 한 송이 꽃조차 아름답게 보이는 이른 아침이었다.

취재 / 조영춘 기자 chun580@hanmail.net



겨울철 음식잡담

비지찌개

하늘이 흐리고 바람이 찬 추운 날씨에는 부대찌개, 김치찌개, 동태찌개 등 뭔가 매운 맛의 찌개가 당긴다. 그래서 필자는 요즘 뚝배기에 구수하니 청량고추가 들어간 약간 매운 맛의 비지찌개를 집에서 자주 해먹고 있다. 이런 비지찌개를 친구들과 함께 점심에 먹고 싶어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지만 비지찌개를 파는 식당은 없고 있다 해도 거의 술집 분위기의 식당 밖에는 없었다.

그런 이유로 필자는 비지찌개가 먹고 싶으면 일단 순두부를 먼저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필자가 단골로 가는 순두부전문음식점 '수가성'에서는 주문한 음식을 먹고 난 후 계산대 옆에 이곳에서 두부를 만들다 남은 비지를 원하는 만큼 마음껏 얻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 주먹 크기의 비지 한 덩어리가 동네마트에선 약 2,000원~3,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두 덩어리만 있으면 4인기준 가족이 한 끼 반찬으로 넉넉히 먹을 수가 있으니 이런 걸 보고 꿩 먹고 알 먹고 가 아닌 순두부 먹고 비지찌개를 먹는다고나 할까 하여간 일석이조다.)

하지만 이런 비지가 일제 강점기에서 1960년대까지 가난의 땟국이 절여있는 도시 빈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존음식이었다고 한다.

(새벽 2시부터 열을 지어야만 가까스로 비지를 사다 물에 타서 다섯 식구가 한 끼를 잇는...1964년 5월 경향신문)

지금에 와서는 추억의 건강식 별미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 유명한 셰프의 창의성을 더하면 뭔가 멋지고 맛깔스러운 한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지난 호에 소개한 붕어빵이 현재 영국 런던 소호에서는 약간의 아이스크림과 아몬드, 블루베리를 얹은 붕어빵 한 마리를 '비비고 골드피시'란 이름으로 접시당 5파운드(약 8,7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붕어빵으로 부자가 되려면 런던으로 가야겠다.

수가성

200석 가까운 이 넓은 음식점은 예전엔 닭갈비를 하다가 이후 어찌된 영문인지 바다횟집으로 개업 이후 다시 문을 닫은 후 5년 전부터 새로운 주인이 순두부전문점이란 이름을 내걸고 다시 개업을 했다. 그런데 여느 분식점에서 5,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순두부음식을 8,000원에 판다는 소문을 듣고 같은 교인으로서 걱정되고 염려된 마음으로 어떠한 맛인가 찾아갔었다. 육중한 뚝배기 안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간 정교한 맛은 입 안 가득 새빨간 자극에 기분이 절로 좋고 또한 돌솥밥으로 나오니 숭늉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조리를 하면 비싸도 상관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 자주 찾는 음식점이다. (추천음식: 순두부돌솥밥 매운맛 섞어찌개 8,000원)





이별

올 초 내 인생의 넉넉한 소울 푸드점이었던 오랜 단골집과 인연을 끊었다. 이유는 단 한가지 7,000원이던 음식 값이 8,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누가 들으면 나를 못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도 그럴것이 밥이면 이해하겠지만 밑반찬도 없는 면 음식이 8,000원이면 아예 육개장이나 만둣국 아니면 2,000원을 보태 갈비탕을 먹는 것이 더 낫다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이라는 내 생각과 함께 단골입장(주인은 나를 모른다)에서 일종의 서운한 감을 뛰어넘어 배신감이 들어 나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 이후론 누가 사준다고 해도 그 먼 곳까지 가질 않고 그곳과 음식 맛이 비슷하고 가격도 저렴한 다른 음식점을 찾아간다고 한다.(가격인상 후 손님이 더 줄었다는 소문이...) 사람은 큰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바로 작은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진다. 그런 작은 돌부리 하나가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그러니 혹시 내 맘속에도 그런 작은 돌부리가 있나 구석구석 잘 살펴보고 특히 교회 내에서 내 눈속의 들보를 못 보면서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는 그런 어리석은 크리스천이 되질 않길 감히 당부한다.



취재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프리덤
FREEDOM

글 / 김춘배기자 beller@hanmail.net

웬만한 영화팬이라면 쿠바 구딩 주니어라는 배우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흑인으로서 할리우드의 수많은 화제작에 출연한 이 배우는 매우 개성 강하고 단단한 캐릭터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키가 큰 육체파도 아니고 잘생긴 핸섬한 마스크도 아닌 흡인력 있는 표정과 성격의 표현으로 입지를 다져온 배우이다. 〈제리 맥과이어〉에서 인상적인 럭비선수로 나와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받은데 이어 〈맨 오브 오너〉,〈진주만〉,〈어 퓨 굿맨〉,〈아메리칸 갱스터〉,〈레드 테일즈〉,〈셀마〉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그런 그가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영화는 주목을 받게 되는데 바로 기독교신앙을 다룬 이 영화에도 그가 나오니 우선 영화팬으로서의 흥미를 잔뜩 유발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 영화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으로 유명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를 만든 성공회 목사 존 뉴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인데 몇 년 전 본지에 소개한 동명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혼동할 것 같다. 후자의 영화는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200주년 기





념작으로 영국 노예폐지의 선구자 윌리엄 윌버포스의 생을 다룬 것이고 당 영화는 그 찬송가 창시자인 존 뉴턴과 그 후예의 파란만장한 곡절을 그린 것이다. 존 뉴턴은 윌버포스의 목사였던 것인 바 이 두 영화에서 공통으로 다룬 주인공인 셈이다.

미국 남북전쟁의 쟁점이었던 노예제도 아래 흑인들의 고난을 다룬 이 영화는 그러한 참상 속에 끈끈히 이어지는 신앙의 맥에 더 비중이 크게 느껴지는 영화이다. 흑인들의 노예제도 아래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어온 것 같다. 무려 100년의 시차를 두고 이 영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으니 말이다.

주인공 사무엘(쿠바 구딩 주니어)이 가족과 함께 소유주의 농장에서 탈출하면서 '지하철도'라는 비밀조직의 도움으로 캐나다로 향하는데 이 조직이 바로 존 뉴턴의 정신을 승계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사랑과 관용으로 노예해방 및 노예제도 폐지를 위하여 오래고 끈질긴 노력을 해 온 것이다.

배우로도 활동한 피터 쿠센스 감독의 첫 작품이기도 한 이 영화는 1세기에 걸친 두 남자의 자유와 구원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영화 전편에 흐르는 은혜로운 찬송가와 더불어 쫓고 쫓기는 긴장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씨앗들 그리고 그 옛날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존 뉴턴 당시 노예무역선 선장의 회심을 이끈 흑인 항해사와 뉴턴의 애인이 준 성경책으로 인하여 형성된 고백이 깊이 연결되는 은혜의 핏줄과 역사를 매우 독특한 구성과 전개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아폴로 13〉,〈쥬라기 공원〉,〈백투더퓨처〉 등에서 활약한 딘 컨디 촬영으로 웅장한 스케일과 수려한 영상미로 〈신은 죽지 않았다〉에 이은 작품성 강한 화제작으로 작년 2015년 11월 개봉하였으나 CGV 단독상영에 춘천은 그냥 지나쳐 버린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소중하고 아름다운 영화가 다시 배급되어 상영관수를 늘리고 흥행하며 많은 교회와 단체들에서도 소개되고 공유되어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로 이 영화 역시 지난 〈두 유 빌리브〉에서 번역자막 수고해 준 네티즌 동역자가 특별히 필자를 위해 '서둘러' 번역자막 작업을 해 준 놀라운 체험이 있었음을 밝히고 싶다.)



음악이야기

A. 피아졸라(ASTOR P. PIAZZOLLA : 1921-1992)의 리베르땅고 〈LIBERTANGO〉1974



아직도 찬바람이 귓가를 시리게 하는 2월에, 뜨거운 정열의 나라에서 시작된 탱고가 멋진 춤으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많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마르 데 플라타에서 태어난 피아졸라는 이탈리아계의 후손답게 음악을 사랑하는 반도네온(BANDONEON) 연주가였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그가 하프 연주자가 되기 원했지만 말이지요. 그는 "아코디언이 영롱하고 유쾌한 소리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악기라면, 반도네온은 벨벳과 같은 종교적인 소리로 슬픈 음악에도 잘 어울리는 악기"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누에보탱고 NUEVO TANGO: 새로운 탱고' 라는 장르를 개척하고 많은 곡을 작곡했습니다. 단순한 춤이 아닌 바로 연주를 위한 탱고곡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현대음악가들을 사랑하는 애호가들 중에서 앙코르곡으로 짧은 즉흥 연주로도 많이 쓰이는 그의 작품들 가운데는 유명한 〈사계: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곡 중에서는 〈리베르탱고〉가 손꼽힐 것입니다. 특히 중국계 첼로의 거장 요요마가 그의 탱고곡들의 앨범을 발매해서 첼로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전통 탱고와 뉴욕에서의 클래식과 재즈를 오가는 음악을 접하면서 새로운 장르로 탱고의 품격을 고상하게 만든 것은 그의 반도네온의 애수를 담은 연주에 있었습니다. 〈아디오스 노니노: 안녕 노니노〉, 〈오블리비온:망각〉, 눈 덮힌 하얀 나라에서의 찬 바람같은 〈사계 중 겨울〉은 비발디를 탱고에 어울리도록 바꾸어놓은 놀라운 음률에 매료될 것입니다. 멋진 퇴역 장교에게 삶의 의미를 던져 주었던 고전적인 탱고춤은 영화를 사랑하는 이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남미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전설적인 탱고 커플- 후안과 마리아의 이야기 〈라스트 탱고〉 가 아르헨티나 헤르만 이라는 감독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음악과 춤을 위한 멋진 탱고를 한 번 즐겨보시지요…그저 인간적인 이야기에 안타까움을 갖고 말입니다. 우리와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이들의 삶과 인생의 이야기가 음악이라는 우주적인 언어로 가져다 준 감동이 있다면… 한번쯤 겨울의 피한을 온 몸으로 느끼시며 그들의 정열에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그럼, 성시 가족과 봄내에 거하시는 모든 이들께 다시 한번 평안을… 다음 이야기는 남미에서 보내야 할 것 같군요. 만천리에서 다니가 보내드린 음악이야기였습니다. (VOL.25), 샬롬!

글 / 김금찬 선교사

건강이야기

자녀양육

글 / 석사교회 이종성 집사
(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자녀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은 부모자신의 자라온 경험, 교육, 사회경제적 계층, 문화와 전통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한다.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태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개념은 맥코비(Maccoby)와 마틴(Martin)이 제시한 통제와 수용에 기준한 분류이다. 그들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 패턴은 얼마나 아동을 통제하고 요구가 많으냐와 얼마나 아동의 상태와 그들의 요구를 배려하고 받아들이느냐 차원에서 나누어 볼 때 권위형(authoritative), 권위주의형(authoritarian), 익애/허용형(indulgent/permissive), 그리고 방임형(neglectful)으로 나눌 수가 있다.

권위가 있는 부모는 성숙한 행동의 표준을 설정해주고 아동이 복종할 것을 기대하지만 이들은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고 일관성이 있고 애정적이며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의사를 존중해 주는 입장의 부모다, 따라서 그들의 아동은 안정적이며 쾌활하고 호기심이 많고 자기 통제 능력과 자기 신뢰를 가진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권위주의적 부모는 권력 지향적 이어서 요구가 많고 통제적이며 무조건의 복종과 규율의 준수를 강요한다. 이런 유형의 부모들의 훈육은 처벌적이고 따라서 아동들은 처벌을 두려워하며 공격적이 되고 비협동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기 존중감과 자기 통제력이 결여되고 부모에 대한 분노의 감정과 불만이 많고 자신을 불행하게 여긴다.

익애적/허용적 부모는 무조건 들어주고 통제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아동은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의 통제력이 없으며 의존적이고 이기적이며 책임감이 없다. 가벼울 때는 버릇없는 아동으로 되고 심한 경우에는 품행장애나 비행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방임적 부모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여가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신체적인 방임과 정서적 방임이 심하면 신체적인 성장과 발육이 저해되기도 하고 애착의 결여나 심각한 사회성의 문제, 지능발달의 문제 등이 생긴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도 애정의 결핍을 경험한 아동은 만성 우울감과 버려진 느낌을 성격적으로 갖게 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인 기술의 결핍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건강한 양육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알려드려요

①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 회비 : 헌금으로 진행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 : 춘천홀리클럽

②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 장소 : 사랑감리교회 ☎ 010-2529-6193 (단무장 이기영)

③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 장소 : 후평 2동 796-11번지

☎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①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 주소 : cafe.daum.net/ccjmm

☎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②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③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 장소 : 공지천 족구장 ☎ 011-361-1995

④ 한마음 조기탁구회

·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 회비 : 월 4만원

☎ 010-3375-4323

⑤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 대상 : 목회자 사모 · 장소 : 예강교회 ·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 010-2492-4316 (회장) ☎ 010-6378-2261 (지휘자)

⑥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 장소 : 나눔교회

☎ 010-5521-3779

⑦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 010-3466-5835 (백승환목사)

⑧ 교회음악 (찬양대지휘)를 배우고 익하는 스터디 모임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10시, 오후7시 · 장소 : 봉의고등학교 정문 앞 봄내 피아노1층(후석로 150번길 17-1)

☎ 010-6375-8874

①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②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 019-9138-4452, 033-251-4452

③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 033-263-5455 (입원상담)

④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동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 070-4383-4720, 010-7567-5012

⑤ 춘천동부교회 교회 음악교육 과정안내

· 과정 : 반주과정 (피아노, 오르간, 신디), 성가독창, 성가합창, 바이올린, 첼로, 플룻, 우크렐레, 기타, 드럼

· 개강 : 3월, 9월 각 12주 과정

· 접수 : 춘천동부교회 2층 사무실 (각 과정별 시간표 참조)

☎ 010-6375-8874, 010-2737-7111

① 오순절기도원 집회안내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정기집회, 매월 마지막주 월밤~목밤까지 외부강사초청 집회

☎ 033-243-5993/010-8263-0190

② NGO 및 창업을 통한 해외선교 지원 입주자 모집

· 목적 : 해외 NGO 또는 사업체를 설립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공간 및 교육을 제공하고 협력하여 선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국제개발협력 사업, 창업, 비즈니스 선교(농업,사회적기업) 등을 준비 중인 단체 또는 개인

· 인큐베이팅 공간 : 춘천시 온의동 방송길 102 (남춘천역,시외버스터미널 도보5분)

· 접수방법 : 수시접수 (12명 선발시까지)

· 지원양식 요청 : Tel. 010-8737-1919 또는 이메일 hyoshinmf@naver.com

· 주광 : (재)기독교한국효신선교회 효신국제협력스튜디오(HyCS)

※ 문의 : 전화: 033.256.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2016년 신년교례회 개최

2016년 신년교례회가 춘천기독교연합회(차덕수 회장) 주최로 1월 7일(목) 오전10시30분에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목사)에서 있었다. 매년 1월 초에는 춘천시 교회와 선교단체 기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를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에는 특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슬람의 현주소에 대한 세미나를 1부에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김종익목사(광명장로교회)의 사회, 김영명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기도 후, 조영춘목사(예광침례교회)의 "이슬람 할랄문화"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있었다. 2부 예배에서는 박상칠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신성감리교회)의 사회로 강철주장로(창대감리교회)의 기도, 차성회목사(샘밭침례교회)의 "마20:26~28"의 성경봉독이 있었고,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차덕수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강원침례교회)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어 직전회장이신 지용찬목사(은혜장로교회)에 감사패 증정이 있었고, 오의석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 순복음조은교회)의 광고가 있은 후, 권오서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3부에서는 오의석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 순복음조은교회)의 사회로 각 기관 소개 및 인사가 있은 후,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서목사)에서 제공한 애찬으로 친교를 나누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임원회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김창환 이사장) 임원회의가 14일(목) 오전7시에 조찬모임으로 있었다. 김창환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상반기의 사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그간 진행하지 못했던 임원들의 해외선교사역과 친목을 위한 선교여행을 계획하였는데, 일정은 2월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필리핀에 방문하기로 결정을 했다.

통일한마당

지난 1월 23일(토) 저녁6시에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실제적인 사역을 위해 만든 통일한마당이 모임을 가졌다. 이 날은 새터민 봉사단체인 호반봉사단이 함께 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반봉사단은 올 겨울에 직접 농사지은 배추로 김장을 해서 새터민 학교 여러 곳에 지원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 호반통일한마당이란 이름으로 모임을 지속하기로 했다.

시목회 회의



춘천기독교연합회(차덕수 회장)는 춘천시에 자문적인 역할을 하게 될 시목회 모임을 구성하기 위한 첫 회의를 1월 19일(화) 오전11시에 신성감리교회(박상칠목사)에서 가졌다. 교단의 대표들로 구성하기 위한 구성원에 대한 논의와 시목회 모임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처음 시행되는 춘천 시목회를 통해 성시화의 꿈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통일광장기도회



1월 25일(월) 저녁8시 석사교 하천무대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함께 모여 통일광장기도회(김수복 목사, 거성교회)를 진행했다. 이 날은 차덕수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장, 강원침례교회)의 말씀선포와 기도회로 이어졌다. 거룩한 대한민국, 복음통일, 북한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안보 및 북핵폐기를 위한 춘천시민대회

올겨울 들어 맹추위를 떨친 영하 20도의 날씨였던 1월 24일(주일) 오후3시에 춘천역앞 주차장에서는 춘천기독교연합회(차덕수 목사) 주최 "국가안보 및 북핵폐기를 위한 춘천시민대회"가 교계지도자를 비롯한 춘천시 지도자들과 성도, 춘천시민단체등 500여명이 함께 모여 규탄하는 집회로 가졌다. 같은 시각,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도 열렸다. 이번 춘천시민대회에서는 조영춘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의 사회와 정덕현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부총무)의 애국가제창, 유진형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의 대표기도, 권오서목사(춘천중앙감리교회)의 "구원을 보라(출14:10-14)"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어 합심기도 시간에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게 하옵소서"의 김창환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남북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의 박찬욱목사(춘천목회자연합회 회장), "북한의 헐벗고 굶주린 동포를 구원해 주옵소서"의 이수형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의 기도인도로 있었다. 그리고 차덕수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장)의 성명서 채택 발표와 김종열장로(국가조찬기도회 강원 부회장)의 구호제창이 있었고, 유동선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의 축도와 오의석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의 광고로 진행되어 마쳤다.

4월 총선을 대비한 기독교 공공정책 개발 시작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에서는 지난 1월 18일(월)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연동교회 〈다사랑〉에서 제20대 총선 여, 야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위원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위원들이 모여 정책개발을 하게 되는데, 각 지역에서 이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참석하여 제안할 수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이며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공동대표회장인 전용태 장로는 "이번 정책위원 모임은, 선거풍토 개선을 목적으로 과거 흑색 비방선거로 얼룩진 선거문화를 정책선거로 바꾸는 것이라며, 정책선거를 통해 대한민국국회가 의회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책대결의 정당정치 풍토가 정착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4월 제20대 총선에 제안할 정책대안들은 2월말까지 의견을 모아 3월 〈교계지도자 초청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를 갖고, 여. 야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하고 정당과 후보의 답변을 정리해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각 시, 군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등이 지역 후보에 질의함으로써 기독교 유권자들이 정당과 국회의원을 선택할 때 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울 계획이며, 총선 후에는 당선자 기도회도 열어 기독교공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청원 서명운동, 이슬람과 할랄식품 대책, 잃어버린 종교교육권 회복을 위한 서명운동, 통일과 북한 인권법, 종교인 과세, 미션스쿨 종교교육문제, 저출산, 청년실업, 자살문제, 중독예방대책 등 국가, 사회현안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정책위원 모임을 년중 계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당초 세계성시화운동본부의 〈성시화중점사역〉중 "사회책임"사역 실천 차원에서 2012년 4월 20일 "(가칭) 한국기독교공공정책위원회"로 발족하였으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이 공동으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로 출범하게 되었다. 또 교회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소속 교단,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각 시, 군에서도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가 중심이 되고, 단체들을 묶어서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총선후보에게 정책을 질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God's time 70번째 이스라엘 회년과 한국광복·분단 70년

이스라엘의 회복과 통일과 한민족의 부르심을 위한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



대회장
신신묵목사
(기지협대표회장)

Love Isra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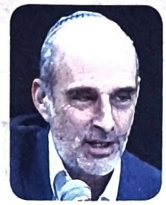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겔37:9)



릭라이딩스 목사
(예루살렘 수캇할렐 기도의 집 대표)



탐헤스 목사
(예루살렘 열방기도의 집 대표)



아셀인트레이터 목사
(Revive Israel 대표)



김진호 감독
(기독교대한감리회 전 감독 회장)



강문호 목사
(갈보리 교회 담임)



유석근 목사
(알이랑 교회 담임)



김한식 목사
(한사랑선교회 대표)

하난 루카츠 목사
(메시아닉 유대인 이스라엘 연합 회장)

미카엘 목사
(테힐라트-야 교회 담임)

안드레아스 목사
(Father's house 대표)

벤자민 오 목사
(미국 뉴저지 사랑과 진리교회 담임)

정연호 교수
(홀리랜드대학 부총장)

간증 다니엘박 교수,
장OO선교사, 탈북자OOO

7대 핵심가치 1.회개 2.십자가의 도 3.이스라엘의 회복 4.한민족의 부르심 5.연합 6.통일 7.부흥

2016년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 IN ISRAEL

일 정 | 2016년 6월 21일(화) ~ 30일(목) (총 9박 10일) (4일간 성회, 5일간 현지교회 방문및 기도투어)
장 소 | 예루살렘, 텔 엔 나스베(미스바) 및 주요 이스라엘 성지
참가대상 | 한국교회, 믿는유대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뜻을 함께한 세계의 그리스도인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됩니다.)
주 최 |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주 관 | 한국교회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 준비위원회,이스라엘 미스바 준비위원회

등록 및 참가 회비 안내

1) 2.15일까지 등록시
- 한국에서 참가하실분 – 300만원(항공료, 숙박, 기도투어 포함)
- 해외에서 참가하실분 – US $1,300(이스라엘 숙박, 기도투어 포함 ※항공 티켓은 각자 구입)

2) 3.15일까지 등록시 한국참가자 310만원, 해외참가자 US $1,350
3) 5.15일까지 등록시 한국참가자 320만원, 해외참가자 US $1,400

예 약 금 한국참가자 30만원, 해외참가자 US $200 (입금 후 전화 확인, 환불 불가)
접수 국내 및 해외 한국교회 미스바 기도성회 준비위원회
등 록 계 좌 우리은행 1002-889-005776 정에스더(미스바대각성기도성회위원회)
문 의 한국 070-7532-9327, 02)445-4735
www.mizpah.kr E-mail : mizpahprayer@naver.com
대표번호, 전화 '1636'누르고 '미스바대각성기도성회'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문의 이정훈 (972) 058-689-9348 E-mail : mizpah2016@gmail.com

MIZPAH
한국교회 미스바 대각성 기도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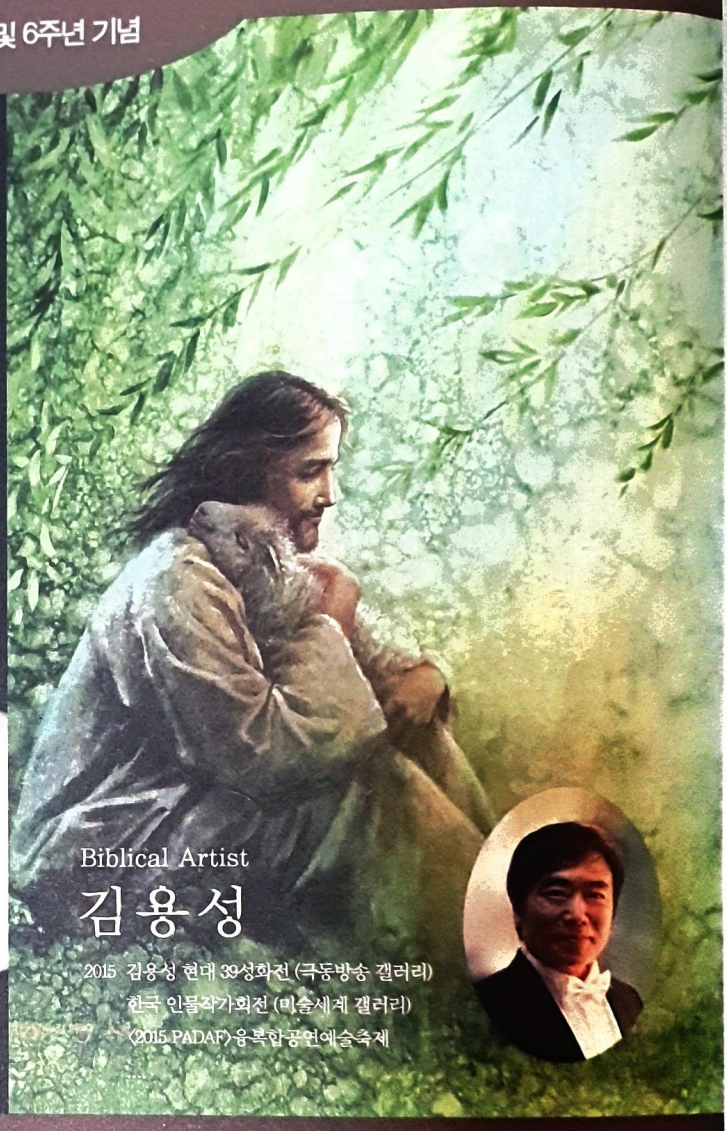
새 성전 감사 및 6주년 기념



Soprano

양 지

한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
로마바로크종교음악 오케스트라의 전속 솔리스트로
YJ 크래식 소싸이어티의 단장.
디르사 선교회 음악감독으로 활동중



Biblical Artist

김용성

2015 김용성 현대 39성화전 (극동방송 갤러리)
한국 인물작가회전 (미술세계 갤러리)
〈2015 PADAF〉융복합공연예술축제

소프라노 양지 초청 음악회

일시 2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한울섬김교회 본당

김용성 성화 전람회

일시 2월 27일 (토요일) - 3월 25일 (금요일)
장소 갤러리 오르

"한울섬김교회 새로운 성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월 27일(토) 오후 4시

오시는 길



한울섬김교회 목사 노에녹

춘천시 스무숲 1길 16 (석사동 907-3) T. 033.261.0695

2016년
기독음악통신대학과정
신입생모집



- 모집과정 : 2년 4학기 교회음악통신과정
- 전공분야 : 지휘, 작곡, 성악, 오르간, 피아노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한 자격소지자

● 부설특강안내 : 3월, 9월 각 12주 과정

과정	요일	내용	강사
지휘클리닉	금 19시	기초지휘과정을 이수한 자로 다양한 곡을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	임창은 미국텍사스주립대학교, 동대학원 합창지휘박사
기초지휘 1	금 17시	기초지휘법	임창은
기초지휘 2	화 19시	기초지휘법	임창호 미국USC대학원, 춘천동부교회지휘자
건반악기	토 10시	기초*중급*고급코드와 반주과정, 리하모니제이션, 신디사이저연주법, 리듬연주법	박자경 백석대실용음악대학원작편곡, 경희대포스트모던학
연령별 피아노 교수법	월 10시	영어유아피아노교수법, 초등저*고 학년피아노교수법, 중고*성인피아노교수법	신정민 호주AICM피아노전공, 영어유아피아노전문지도자

기독교음악예술원
기독교음악통신대학 춘천분교

춘천분교 춘천시 효자동 700-10, 2층(부속초교옆)
www.agapemusic.or.kr Tel 010-2737-7111

발전기금

사암교회 주향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자연유치원 제자들교회 신성교회 남산감리교회 광염교회
온누리교회 거성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중앙성결교회

개인

고순덕 곽해옥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정미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진구 김춘화 김향란 김현철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노수자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갑출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미연 신옥자 심상만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유정희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상만 이성숙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규 이영애 이영준 이용숙 이윤규 이윤숙 이은경 이은옥 이은준
이종상 이주영 이진주 이태우 이형식 임덕수 임우선 임재철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창순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명호 조소현 조수지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선이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탁광희 표복순 한명수 한정연 한희선 한희현 함종현 허순영 허인영
현재용 홍기택 홍순복 홍은숙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병호 황은주

춘천성시운동본부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 후원계좌 안내 〉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교회

갈릴리교회 광염교회 거성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제일장로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강원침례교회 순복음시온성교회 횡성감리교회

단체 및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영광한의원 JDM 춘천YWCA 행복재가요양기관 춘천와이신협 매일관광
성시무용단 월드비전 건사연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한국제자훈련원

KDTI 훈련생 모집!

"훈련하는 제자, 준비된 지도자"

성경을 깊이 있게 배웁니다
신학을 체계 있게 배웁니다
선교를 현장에서 배웁니다
제자도와 리더십을 익힙니다



모집 요강

훈련기간 _ 2016년 3월 2일(수) - 12월 3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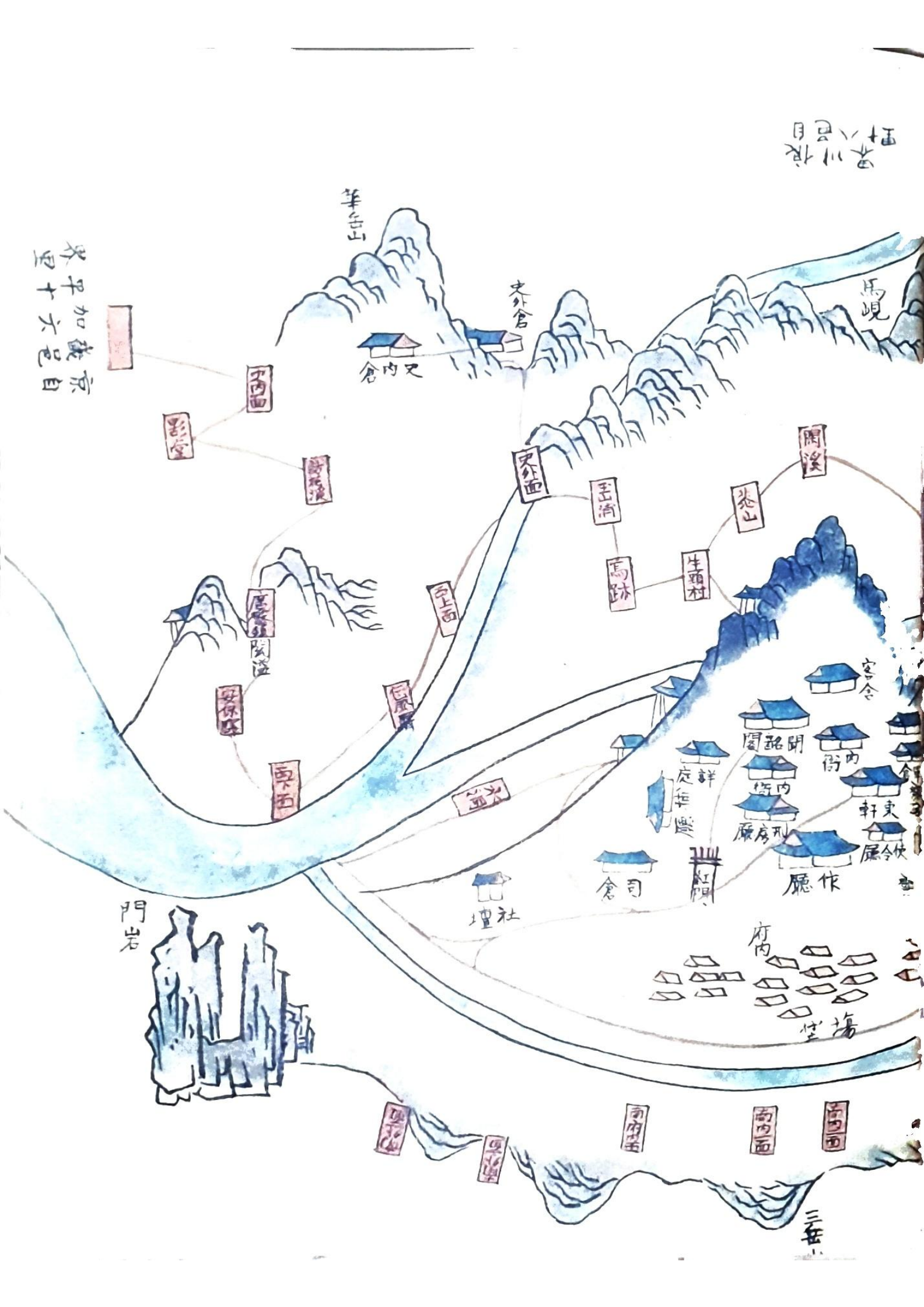
원서접수 _ 2016년 2월 19일(금)

훈련 내용

성경훈련, 제자훈련, 영적지도력, 전도훈련, 소그룹훈련, 실천신학훈련, 기도훈련, 도시생존훈련, 농촌공동체훈련, 공동체생활훈련, 선교사훈련(IMTI), 현장사역훈련, 국내 기독교유적지 탐방, 해외선교훈련, 수도원훈련 등

문의 및 원서접수처
24217 춘천시 동면 만천리 602-1
T : 033/242-2819 F: 243-6705 E-mail : jdmkdti@hanmail.net
홈페이지 www.kdti.org

JDM 예수제자운동


筆岳山
馬峴
外倉
內倉
影堂
外面
玉湍
高跡
生麗村
陶溪
巢山
客舍
閣
內
軒
東
廳
作
倉
司
社壇
府內
海
門岩
三岳山